시로 읽는 성보순례
돌부처는 날마다 극락 가네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2면

현대불교

자비를 베풀 때는 평등한 마음으로
미워함과 사랑함,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 수행도지경 –

창간 1994년 10월 15일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2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0호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스님들 장기기증 2배 증가

지난해만 140명…청규정신 나눔으로 이어져

지난해 스님들의 장기기증 서약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40명의 스님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이는 전년 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희망 출가자가 늘어난 원인을 조계종이 2010년 편찬한 〈선원청규〉의 영향으로 진단했다. 생명나눔은 "새로 편찬된 〈선원청규〉에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서 스님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중앙 교역직 스님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기기증 서약을 한 스님은 2000명을 넘어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최근 많은 스님들이 앞장서 기증신청을 함으로써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솔선수범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해외교류 · 대선후보 토론회 준비

종단협 신년사업계획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사무총장 홍파, 이하 종단협)는 1월 3일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종단협은 올해 연례사업으로 18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여는 신년하례법회를 비롯해 2월 중 정기총회 및 이사회,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실시한다.

특별행사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기원법회는 상반기 중 정 · 관계 불교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8차 한중수행체험 중국대회와 제1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10월 중), 제3차 세계불교포럼 홍콩대회(4월 중) 등 해외교류사업도 진행한다.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행사도 연다. 국제포교사 결집대회, 외국인수행자 한국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불교문화체험 사업, 해외동포교육자 한국문화체험 등을 소속 종단들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종단협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태국 대홍수 구호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월호스님의
행불아카데미

조계종 교수아사리 월호스님의 직강을 통해 경전의 참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 강의내용 : 초기 명상법에서 참선에 이르기까지 40회에 걸쳐 강의 및 실습을 병행합니다.
· 행불아카데미 (명상에서 참선까지 실기와 이론 겸수)
– 목요반(정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 금요반(정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인 터 넷 반 :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매달 1회 미팅 실습
· 불교입문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12시 30분
· 화 엄 경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능 엄 경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 문 의 : 월호스님의 경전교실 02)732-9500
Daum 카페 행 불



"가산불교대사림 완간 유일한 소망" 2일 입적한 지관 스님은 유훈에서도 〈가산불교대사림〉 완간을 당부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나타냈다. 스님은 유훈을 통해 "속가와 불가에 대해 부끄러울 뿐 미련은 없다. 다만 〈가산불교대사림〉이 지금까지 12권이 출간됐고 아직 남은 8,9권을 정리해 부처님께 고하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3년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을 발원하고 경국사에서 부처님께 삼천배를 올렸다. 사진은 경국사에 세운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발원문을 바라보고 있는 지관 스님.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산 지관 대종사 원적

2일 경국사서 … 6일 종단장으로 해인사서 영결식 엄수

문중화합 · 수행 포교 유훈
'가산불교대사림' 완간 당부
정부도 금관문화훈장 추수

이 시대 대표적 학승이자, 불교뿐만 아닌 국민의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 받아 온 지관 스님이 1월 2일 오후 7시50분경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종단 내 원로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종단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은 오전 11시 명종 5타와 함께 시작됐다. 이날 전국 각 조계종 사찰은 지관 스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같은 시각 동시에 타종을 했다. 영결식에서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결사 등이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아 종단을 자존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연을 접으시니 후학들은 비탄의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지관 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의문을 보내 지관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정부는 또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교화를 위해 노력한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을 6일 추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문광부 장관이 대독한 추도 메시지에서 "지관 스님은 종교간 화합에 힘쓰셨고, 종교가 다른 저와도 깊은 인연을 맺으셨다. 늘 만날 때마다 건강해야 한다고 염려해주셨다"며 지관 스님과의 인연을 전했다.

지관 스님은 지난 해 지병이 악화돼 입원 하면서 임종게를 남겼다. 임종게에서 스님은 "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허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내네/ 팔십년 전에는 그가 바로 나이더니/ 팔십년 후에는 내가 바로 그이로다"라고 남겼다.

5일 공개된 유훈에서 스님은 ▷다비식은 간소하게 치르되 상여의 장엄, 화장대의 꽃장엄도 일체하지 말 것 ▷다비하는 사찰 사중에 대해 추호의 피해도 끼치지 말 것 ▷문도들은 항상 문중 화합을 도모하고 수행자의 본령과 출가한 조치를 망각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스님은 특히 현재 12권까지 출간된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을 위해 고옥 스님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前 기획실장 승원 스님도 〈가산불교대사림〉이 지관 스님 유훈에 따라 완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영결식 전 기자들과 만나 "문안은 큰스님이 다 정리하셨다. 완간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한 만큼 유훈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승원 스님은 "큰스님을 모신 것은 복이라고 생각한다. 입적 후 참 많이 울었다. 여러 가지 해오신 일을 생각하면 큰스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도 많았다.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던 집념이 대단하던 분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다비식은 유훈에 따라 지화로 장엄돼 간소하게 진행됐다. 거화 의식이 시작되자 사부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며 한 목소리로 가야산을 울렸다. 다비장에 불꽃이 일자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은상좌 세민 스님과 종단 내 스님들도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세민 스님은 문도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큰스님이 남기신 업적과 수행력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화합하고 단결할 것이다. 유훈을 실천하고 스님이 못 이룬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辭世를 앞두고

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허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내네
팔십년 전에는 그가 바로 나이더니
팔십년 후에는 내가 바로 그이로다.

배우고 가르치고 일한 종장 4면
입적에서 다비장까지 5면
법랍 66년 주요 행장 6면

2012년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

매년 새해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는 교수신문이 2012년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은 불교계 용어다.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사견이나 사도를 깨어버리고 정도를 따른 다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지난 달 전국 대학교수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전체응답자의 32.4%가 '파사현정'을 선택했다.

'파사현정'을 추천한 김교빈 호서대 교수는 "파사현정에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실천이 담겨 있다. 내년 한 해, 특히 총선이 온갖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옳고 바른 것을 바로세우는 희망을 담았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870호 CONTENTS

종단 2 · 3
전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계종 상반기 연수교육
종합 3
조계종 시무식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신년 교시
특집 4 · 5 · 6
지관 스님 열반



시방세계 8
Expo 앞둔 여수 사찰
문화 21
최승희 제자 새터민 김영순 원장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건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매산 김건원


청곡 이한동

※ (높이 35Cm×둘레 9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설날 파격 선물 SET (발송에서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 298,000~~ → 198,000원

①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소품 연화 약 찻잔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③ 진품 포대화상도 작품 (10호)



진품 포대화상도를 집안에 모셔두면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이요, 밝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밖에 있는 복을 집안으로 불러 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④ 진품 달마도 작품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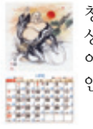
진품 달마도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액을 막아 주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언제나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⑤ 부부용 순금카드 2점



복 포대화상1점은 부인이 간직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차고, 용달마 1점은 출근하는 남편께서 지갑에 넣어 다니시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⑥ 2012년도 미니카렌다 (차걸이겸용)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포대화상 6점, 달마도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차안에 걸어 두시면 안전운행을 지켜 줄 것입니다.
[크기 : 가로 9cm × 세로 10cm]

구입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돌부처는 날마다 극락 가네

권 현 형

흰빛이라, 흰빛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였다가 물무늬처럼 흩어진다
백탑 아래 연암이 지나가고
의암이 지나가고 만해가 지나가고

흰빛을 격렬히 지키려던 사람은 사라져도
흰빛은 살아 있으므로 검은빛이 된다
흰 대리석탑은 살아 있으므로 검은 대리석탑이 된다

돌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우는 이여,
검은빛은 흰빛에서 흘러온다

수미산이 되어 수미산을 쌓던
층층나무가 되어 층층나무를 심던
마음의 첩첩이 돌에 스미고 고여
탑에 새겨진 흰 부처는 생불이 되었다

물 위 팔만 유순, 물 속 팔만 유순
흰 탑을 소달구지로 끌고
돌부처는 날마다 극락으로 간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권현형시인은… 강원 주문진 출생. 1995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중독성 슬픔〉 〈밥이나 먹자, 꽃아〉 등.

사찰 옭죄던 독소조항 없어져

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교 자주성 강화

지나친 규제로 전통사찰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전통사찰 주지임명권, 재산목록 보고 등 100년 동안 불교계를 관리·통제해 온 독소조항이 삭제됐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전사법에는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제7조 2) ▷재산목록의 작성·비치(제11조) ▷재산관리인 임명(제16조)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 조항이 모두 폐기됐다.

'재산관리인 임명' 조항은 순천시의 선암사 재산관리인 파견의 예가 보여주듯 국가가 사찰에 일정 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개정안에서는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 변경했다(제2조 3). 그동안 일부 전문가조차 경내지를 사찰 담장 안으로 오인하는 폐해가 있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내지와 관련한 논란은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재산 관리인 임명, 재산 목록 등
국가의 불교규제 조항 철폐돼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제10조 2). 특히 전통사찰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제19조 2).

이와 관련해 개정안 제1조는 기존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라고 고쳐 국가의 불교계 지원에 대한 이웃종교의 시비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다.

제2조 전통사찰의 정의는 기존 점단위로 인식하던 것을 면단위로 확대해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명시했다. 주지는

전통사찰 방재 시설 지원 등
국가의 의무 법률로 명시해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에서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로 확대해 위상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안에 없던 문화유산의 정의를 삽입시켜 연등회 등 무형문화재까지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사찰의 지정 관련(제4조), 기존의 시행령에서 정했던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도견 스님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1911년 사찰령을 시작으로 100년 동안 국가가 불교를 관리·통제해온 법률을 개정해 교단의 자율적 관리를 확립하게 됐다"며 "규제와 관리 중심이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보전 및 지원으로 변화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방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은 "정부와 여야, 종단이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원만히 합의한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종단이 요구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전사법 개정에 이어 향후 불교 관련 중첩 규제법령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개정된 전사법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발간해 종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사설 31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인문 강좌 강화·법계과정 신설

2월 7일부터 상반기 연수교육
교육신청은 인터넷서 가능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2012년 상반기 연수교육이 2월 7일 시작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7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상반기 연수교육 6개 과정(법계·선전·삼장·인문사회문화·사찰운영·전법향상 과정) 28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법계과정(6개 강좌)을 신설해 스님들이 승납에 따라 차별화·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정수일의 문명교류이야기〉 〈나의동양고전독법〉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스님을 위한 경제이야기〉 〈스님을 위한 법률이야기〉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 등 인문사회문화과정(8개 강좌) 강화를 포함한 13개 강좌을 신설했다.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올해 신설된 인문사회문화 6개 강좌는 스님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 서울·경기 지역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교육장소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과정도 올해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자원봉사활동과정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152개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해 지역사회복지(40개) 장애인복지(22개) 노인복지(41개) 아동·청소년복지(48개) 재난·재해구호(1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별로 선택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개설 강좌 중 스님들의 호응이 컸던 〈불교심리치료〉 〈신도상담지도과정〉 〈초기불교특강〉 〈중론〉 〈설법능력향상과정〉 등은 올해에도 강좌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연수교육 강좌는 2010년 26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1년 33개, 2012년 53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인증교육을 포함한 전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2010년 1500여 명, 2011년 2800여 명이었다.

고영석 연수팀장은 "올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스님은 3300명 이상으로 종단 내 연수교육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올해 상반기(2~6월) 연수교육에 이어서 하반기(7~12월)에도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25개 강좌)할 계획이다. 하반기 연수교육 세부내용은 5월경 안내된다.

진광 스님은 "올해에도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지소임을 맡지 않은 스님들과 2강좌 이상을 신청하는 스님들의 교육비를 할인한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스님들의 연수교육 이력 개인별 관리와 신청 편의 등을 위해 연수사이트를 1월 말경 오픈할 예정이다. 주소는 monkedu.buddhism.or.kr이다. 02)2011-1807

조동섭 기자

편견 없는 세상 위해

김포 지관 스님 천막 기도

교육과 복지를 외면하는 의회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한 스님이 100일 천막기도를 시작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대표 지관)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지역 내 초등학교 강당 관련 예산을 삭감한 김포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월 4일 김포시청 앞에서 열었다.

용화사지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 마련을 추진해 왔다.

김포시의회는 구랍 22일 열린 2011년도 김포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예산 1억 5000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또 시설이 노후한 지역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설립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관 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100일 천막기도에 들어갔다.

스님은 "김포시의원들의 편견과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천막기도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2012년 상반기 연수교육과정 강좌안내

과정	강 좌 명	일 정	강 사	장 소	교육비
법계(法階)과정	사찰경영지도자과정(중덕, 정덕 이상)	4월23일~27일	교육원	전통불교문화원	35만원
	스님이 알아야 할 불교생활의례(견덕, 계덕 이상)	6월14일~16일	화암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신도상담지도과정(중덕, 정덕 이상)	2월23일~25일	담교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부동산의 보존과 활용(중덕, 정덕 이상)	4월12일~14일	이점수, 김봉석,김영주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리더십과 코칭1(중덕, 정덕 이상)	3월8일~10일	김종명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리더십과 코칭2(대덕, 혜덕 이상)	6월21일~23일	김종명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선전(禪典)과정	전심법요	5월15일~17일	지환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무문관	5월7일~9일	무에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선문촬요	3월12일~14일	현봉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선가귀감	3월27일~29일	지안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삼장(三藏)과정	화엄경	4월16일~18일	해강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청정도론	6월8일~10일	미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유식삼십송	4월24일~26일	혜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불교인문사회문화과정	정수일의 문명교류이야기	3월15일,29일,4월12일	정수일	국제선센터	15만원
	나의 동양고전 독법	3월2,9,16일	강신주	국제선센터	5만원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스님을 위한 경제이야기 –	4월13,20,27일	고운기	국제선센터	15만원
	세계화와 한국경제	3월16,23,30일	홍종학	국제선센터	15만원
	스님을 위한 법률이야기	5월3,10,17일	최재천	국제선센터	15만원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	3월16,23,30일	조승미	국제선센터	15만원
	티벳불교의 향기	4월2일~4일	최로덴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초기불교 특강	4월13일~15일	각묵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운영	사찰경영지도자과정(통합)	2월7일~11일	교육원	전통불교문화원	35만원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6월25일~27일	강태완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설법능력향상과정	3월19일~21일	김이곤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전법향상	불교 심리치료	5월18일~20일	서광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청소년 명상지도과정	5월11일~13일	김남선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육	4월6일~8일	이창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다도의 이론과 실습	5월1일~3일	혜우스님	지리산일대	20만원

[유의사항]
○전체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수교육 강좌는 강좌 시작 5일전 신청이 마감되고,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연수교육 인증과정 안내는 각 사찰로 배포한 연수교육 안내 책자 및 종단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기 2556(2012)년 상반기 연수교육 안내

■ 2012년 조계종 상반기 연수교육은 작년에 개설한 강좌 중 스님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신 강좌로 그 틀을 유지하되, 법계과정을 신설하여 스님들이 법계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롭게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5월 중 세부 연수 내용과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 음

○교육대상 :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2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및 시간 : ① 일반연수과정 : 숙박 – 2박 3일, 12시간 이상
통학 – 주 1회 4시간, 3주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4박 5일, 25시간 이상

○교육장소 : ① 일반연수 및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② 통학연수 : 국제선센터(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11)

○접 수 : ① 말사 주지스님께서는 1월 27일(금)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교육신청 및 연수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27일(금) 이후에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② 직할교구 말사 주지스님 및 그 외 스님들께서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한불교조계종 연수사이트 (http://monkedu.buddhism.or.kr)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③ 교육은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하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교 육 비 : ①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②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께 모든 연수교육과정 교육비중 5만원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③ 교육과정을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들께는 2회차부터 교육비를 5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④ 승납 10년 미만이면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들은 10만원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납부시 반드시 속명(법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명으로 납부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8 팩스) 02-732-4926

불기2556(2012)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종정예하에 간절히 예의 다해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서 강조

“종정예하는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다. 종단 어른에 대한 예의는 간절히 지켜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정 스님에 대한 예의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교인 종교평화 선언과 관련해 공개편지를 주고받은 도법 · 법안 스님과 종정예결실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 슬로건은 ‘내가 바뀌면 불교가 변한다. 불교중흥 이룩하자’ 이다. 개인 단위의 자성과쇄신결사의 실천이 불교중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로마 방문 때 또랑 추기경이 교황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또랑 추기경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종단 어른에 대한 예의는 간절히 지켜야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한국불교는 개인화 개인불교 주지불교가 됐다. 종단 위계나 정체성 보다 자기 잘난 맛에 집착한다”며 “나보다 종단, 절보다 종단, 본사보다 종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시무식에서 ‘기본 · 공심 · 위계 · 우리 함께’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출가자의 ‘기본과 하심’을 강조했다. 조계사 경내를 지날 때 신도들의 합장을 외면한 채 지나는 스님들을 언급하며 출가자라고 해서 신도들에게 인사만 받지 말라고도 말했다. 재가자들의 예의에 출가자 역시 예의로 답하라고 경책했다. 특히 스님은 “교역직 종무원들은 일반직 종무원(재가종무원)을 종단을 구성하는 파트너로 대우하라”고도 강조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일반직 종무원은 근태관리 등 시스템이 있지만, 교역직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교역직들이 부서 일에 책임감과 집중, 절실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교역직으로서 종무에 80% 이상 집중하고, 나머지 20%는 초하루 법회 등 사찰 일을 해 달라. 부서 일에 간절하게 소임을 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자성과 쇄신결사는 우리부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길은 멀고 힘들다. 교역직 역시 일이 힘들겠지만 결사의 출발은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자성과쇄신결사로 함께 어울려 가기 힘들다. 힘을 모아 결집된 인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시무사를 통해 창종 50주년을 맞는 조계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시무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종무원 대표로 박용규 총무차장이 새해를 여는 의미에서 축하떡 절단을 함께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1월 5일 해인사 신년하례법회에서 대중에게 당부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종정 법전 스님

“화합 화두로 용맹정진하라”

법전 종정, 신년하례법회서 교시

“임진년 한 해도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서 불퇴전의 각오로 용맹정진 합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1월 5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신년교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종정스님은 “종시(終始)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것이 사바세계의 시간공간(時間空間)이지만 중생계에 상주(常住)하면서도 무사귀인(無事貴人)의 자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무사귀인은 언제나 나를 비움으로서 저절로 얻어지는 자리이고 서로를 낮춤으로서 서로에게 더욱 귀해지는 자리”라며 하심을 강조했다.

종정스님은 “하늘의 운은 땅의 유리함을 이길 수 없고 땅의 유리함 역시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며 “임진년 한 해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불퇴전의 각오로 무사위(無事位)를 향해 용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교시에 앞서 법전 스님은 “조계종단의 대선지식이요, 해인총림의 어른으로 서당이신 지관 대종사의 열반을 삼가 애도하자”며 “설사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대종사의 가르침은 언제나 중천(中天)의 태양빛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니 속환사바 하시어 대원력을 성취하소서”라고 지관 스님을 추모했다.

조동섭 기자

백혈병 앓는 생후 10개월 박준서 군

생명나눔, 1월의 환우



준서는 10개월 된 남자아기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엄마 아빠가 결혼 한지 13년 만에 태어났기에 매우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준서의 부모는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며 알뜰살뜰 모아 작은 전세방도 마련하고 준서를 낳으면서 즐겁게 살았다. 그러나 준서가 생후 5개월경이 됐을 때 갑작스레 큰일이 닥쳤다.

돌도 지나지 않은 조그만 아이가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 준서는 바로 무균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7번이나 받았고 현재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준서 가족에게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은 치료비 문제다. 지금까지 치료비로 2400만 원이 발생했고, 향후 45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준서의 부모는 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입이 전무한 상태다. 알뜰히 모아 마련한 전세방은 치료비로 소진될 상황이다.

준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에 보건소 소아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치료비 마련을 위한 대출도 불가능하다.

치료비 때문에 어린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직 한국국적이 없어도 준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이웃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정성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에 피운 자비의 연꽃 조계종 태국재난구호단(단장 종선, 이하 구호단)은 1월 5~8일 태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구호단은 5일 세계불교도우회 본부(WFBHQ)에 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하며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구호단은 WFB에 태국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빠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2달 가까이 물에 잠겨 훼손이 심한 나무 심기를 주요 행사로 진행했다. 이후 구호단은 6~7일 의효진료활동과 방켄 돈무앙 지역 등에서 복구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올해가 왜 창종 50년인가

1962년 통합종단서 비롯된 인식

2012년은 조계종 창종 50주년의 해이다.

조계종조 도의 국사는 신라시대 고승이었는데, 왜 올해를 창종 50주년이라고 할까?

조계종은 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이다. 조계종 명칭은 도의국사(道義國師)가 개산(開山)한 가지산문(迦智山門)에서 기원한다.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중천(重闡)을 거쳐,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가 구산(九山)을 통합해 조계종이라 한데서 연유한다.

조계종은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말미암아 명맥만을 유지한 채 선교양종(禪教兩宗)의 팔도도총섭제도(八道都總攝制度)가 임진왜란 때까지 지속됐다. 청허휴정의 선 중흥에 의해 활기를 띄기 시작한 불교는 조선후기에는 백파와 초의의 선논쟁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도 했다.

조선 말기까지는 남북총섭시대(南北總攝時代) 선종과 교종이 양립하던 때였다. 선종은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으로 교종은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으로 나뉘었다. 1911년 일제에 의하여 사찰령(寺刹令)이 제정돼 31본산(本山)제도가 생겨났고 이때 선 · 교 양종의 명칭이 사용됐다.

1913년에는 31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제도가 실시되다가 1923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이사제도로 됐다. 1924년에 이르러 선 · 교 양종을 통합해 조선불교조계종이 설립됐다. 1941년 지금의 조계사인 태고사(太古寺)에 총본산이 설치되고 조계종 명칭을 되찾았다. 하지만 식민 통치를 받던 때여서 31개 본산 주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해방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출발했으나 1954~1962년은 비구 · 대처 승려간의 분규로 불교정화운동이 계속됐다. 불교정화운동의 결과 1962년 4월에 비구 · 비구니만을 인정하는 통합종단이 출범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다.

한편, 조계종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중앙기록관에서 기록물 발간을 준비 중이다.

조동섭 기자

경주문화재硏, ‘신라의 금동불’ 발간

금동불 86점 제작기법 등 담겨

경주지역에서 발굴 · 조사된 금동불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최근 신라 불교문화재 기초조사 사업의 하나로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금동불의 성격과 양식적 특징들을 정리한 〈신라의 금동불〉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경주 지역 내 신라의 옛 사찰(황룡사지 등 11개소)과 왕경의 주요 유적(월성 등 5개소)들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86점의 금동불을 수습했다. 책에는 이들 금동불의 개요, 출토 당시의 모습, 개별 금동불에 대한 설명, 금동불의 제작기법 등 기본 자료들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연구 논문 2편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발간 자료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의궤 환수에 이상득 의원 도움 컸다”

1월 5일 조선왕실의궤가 전시된 국립고궁박물관에 환수위원회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사무처장 혜문 스님과 의궤 반환에 힘쓴 주역들이다.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혜문 스님은 “이상득 의원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반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이 의원은 막후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적 타협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과 환수위원회 회원들은 혜문 스님 안내를 받으며 조선왕실의궤와 도서 등 반환된 문화재를 관람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법당 및 사찰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루 시공불사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침 ＊틈 메꾸기 ＊도정작업 2회 ＊완료

강화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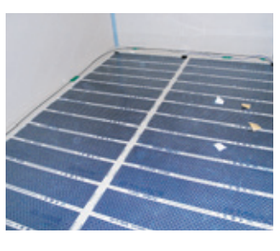


법당,전각 타설 복원 불사



＊이송작업 ＊보강작업 ＊타설작업 ＊복원작업 ＊시공완료

필름온돌



밝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I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없이 배우고 후회없이 가르치고 힘껏 일한 종장

경 · 율 · 론 삼장에 능통
인재양성 · 교학발전 주력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2005~ 2009년 재임)은 1932년 경북 영일에서 태어났다.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195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0~1972년과 1993~1996년에는 해인사 주지를 지냈다.

스님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 논란이 한창이던 1995년 훼손 위기에 처한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스님은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2003년 대법원의 불허 판결, 2011년 환경부 고시 폐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82년 11월에는 '서울시 정의사회구현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년 조계종 포교대상, 2005년 만해대상 학술부문상을 수상했다.

지관 스님은 종단 내 각 종 최연소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8세에 강사에 임명돼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38세에는 최연소 본사(해인사) 주지에 올랐다. 1986년에는 비구 최초의 대학 총장 기록도 갖고 있다.

경 · 율 · 론 삼장에 두루 능통한 스님은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 계율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는 율사 자운 스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 율풍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도 평소 계율과 수행에 대해서 자주 강조했다.

스님은 2005년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열린 '동화사 계율 수행 대법회'에서 법주로 나섰다. 이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보 중 법보의 교리가 아무리 수승하고 오묘해도 교리 자체가 스스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승가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계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가혹한 조복심 없이는 대개 경외의 대상에 그칠 뿐이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2008년 광주 무각사 대중법회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가불자들의 수행에 대해 법문을 했다. 당시 스님은 "흘러가는 물이 참 설법을 하는 것이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고, 막아주면 고이고, 열을 가하면 더워지는 등 수처자재(隨處自在)하는 것이다. 대하는 것마다 다 수용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에 서야 한다. 중심을 세우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혜를 익히는 것이 참선, 염불, 기도이다. 1초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심이다. 기도하면서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 입조심 · 몸조심 · 마음 조심을 해야한다"고 설했다.

스님은 칠순의 나이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에 몰두했다. 스님은 가산불교문화원장을 지내며 동국대에서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30년 이상 강단을 지켜온 경력에도 스님은 매번 1시간 전에 강의내용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준비했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시절 지관 스님의 손에는 늘 보유원고 목록과 각종 사업계획서, 아이템 노트가 들려 있었다. 스님은 이 노트에 수시로 메모를 하면서 불교연구에 관한 생각을 항시도 잊지 않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때부터 스님과 함께 했던 고옥 현원 스님은 강원을 졸업하던 1979년 경 해인사에 계신 지관 스님을 찾아갔다. 당시 고옥 스님은 "스님께서는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강사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해야 대접 받는데, 스님도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떠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지관 스님은 가만히 고옥 스님을 바라보더니 "니나 공갈 많이 치고 살아라. 평생 동안 대장경 다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관 스님은 말이 앞서는 것을 싫어했고, 한 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행을 하면 종단도, 자신도, 모두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과 교학발전에 독보적인 업적을 창출한 지관 스님은 한결 같은 모범으로 불자들에게 살아 있는 법문으로 존경 받아 왔다.

이같은 스님의 언행은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돼 왔다. 정부는 1월 6일 지관 스님의 영결식에서 한국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 · 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 '가산불교대사림'

생의 마지막까지 심혈
불교 연구와 저변 확대 기여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꼽히는 지관 스님은 저술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생전에 〈치문경훈〉〈대혜서장〉〈도서〉〈선요〉〈절요〉〈요경서설〉〈남북전육부 율장비교연구〉〈비구니 계율 연구〉〈불교교단 발달사〉〈계율론〉〈조계종사〉〈가야산해인사지〉〈역대고승비문총서〉등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지관 스님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저서가 〈가산불교대사림〉이다. 이 책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꼽힌다. 1999년 처음 출간된 〈가산불교대사림〉은 매년 2~3권이 발간될 출판이다. 당초 15권 완간이 목표였으나 내용이 늘어 20권 정도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13권까지 출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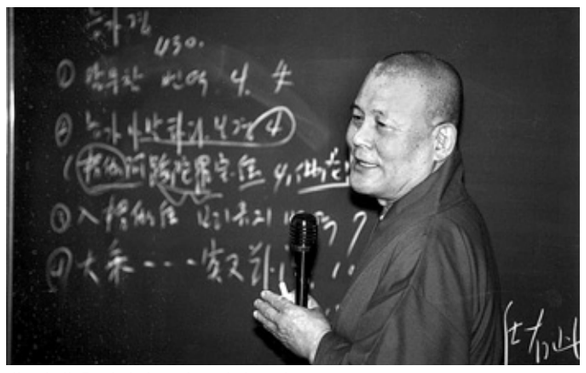
지관 스님이 처음 이 책의 출판을 발원한 것이 1982년이다. 스님은 당시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3000배 기도와 함께 불교대사전 편찬을 발원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제1, 2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원력이 모아져 15만여 불교 술어를 집대성한 대형 불사다. 이 책은 한국불교 관련 항목의 발굴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서술했으며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불교항목을 30% 가량 새롭게 추출했다. 또한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면서도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등 불교 원어를 병기했다.

지관 스님은 〈가산불교대사림〉에 첨가할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전에 20권까지 발간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유훈을 통해 이 책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고옥 스님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밝혔다.

스님은 유훈에서 "아직 8,9권 정도 남은 완간이다. 이 사업이 외세의 간섭과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한편 나의 문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하려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1963년 4월 5일 해인사 강원 사교과 수료 기념식에서 도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지관 스님(사진 앞줄 가운데)


〈능가경〉을 강의하고 있는 지관 스님


지관 스님이 2009년 아름다운 동행의 연탄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다.


2009년 10월 30일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을 퇴임하고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지관 스님.

종단 화합과 안정 우선했던 총무원장

범불교 대회 열고 종교편향 꾸짖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최초 시행
표준 '금강경' 편찬사업 전개

지관 스님은 2005년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1998년 종단 분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화합조처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은 안정과 화합을 우선했지만 불교가 홀대 받는 일에 있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공직사회의 불교 편향이 심각해지자 2008년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님의 강력한 대응은 공직자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10 · 27법난 특별법 제정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불교계 최초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출범시켜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기도 했다.

2008년 시행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은 총무원장 재임 시절 지관 스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법의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결계와 포살이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돼 현전승가의 수행과 전법, 청정성을 더욱 고양시켰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은 조계종 스님 누구나 하안거 · 동안거 시 결계신고를 하고, 결제지간 중 각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하안거와 동안거 결계록을 통합해 연1회 발간해 종단 최초로 제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 소속 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스님은 2009년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대중이 암자 스님 한명 못 당하고 암자스님 수백이 토굴 스님 1명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종책 사업을 꼭 꼬집자면 결계포살의 시행이 아닐까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학승답게 지관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중에도 연구서 발간 작업에 매진했다. 2009년에는 한국불교 문화의 정수(精髓)를 책으로 모은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역 7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원효 지눌 휴정 등 한국불교 대표 스님 저술과 화엄 등 제교학, 공안집과 선어록 등 선서(禪書), 문화, 비문(碑文), 계율 등 13권으로 구성됐다.

2009년에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을 발간해 모든 종도들이 〈금강경〉을 쉽게 독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간화선 대중화를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의 참여와 협조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여 차례의 토의를 거쳐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을 편찬했다.

지관 스님은 또 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 내에 '어린이 · 청소년팀'을 구성하고 집중 사업을 전개했다. 전담팀 구성은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중심 도량을 선정하고, 전문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재임 기간 중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조계사 성역 불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불교가 국민들 곁에서 호흡하고, 수행과 전법의 역량을 축적해 한국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스님의 원력이 담긴 사업들이었다. 박기범 기자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12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9기생, 대법사 제8기생, 출가학승 제8기생 모집요강

본 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58조에 의한 종단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9기 법사 과정 (출강통신) 2년 4학기
제8기 대법사 과정 (출강통신) 1년 2학기
제8기 출가학승 과정 (출강) 2년 4학기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 3시간)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증명) 3매
4. 동등자격소지사 특별 전형 입학
* 불교교육대학 제7기 과정모집 / 6개월 교재3권 입학원서

원서 접수 및 마감
• 2012년 1월 1일 ~ 2012년 2월 12일까지 • 면접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을 부여함.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속에서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정을 학승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며 사암, 포교원 개설운영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및 상주권공,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을 지도합니다.
• 불교교육대학 등록금 10만원. 법사, 대법사, 출가학승 등록금 1학기 50만원. 교재비 1학기 30만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
전화 055)345-9393. 346-5115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혜법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Yuko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가신길 이정표 삼아 정진하겠습니다”

지관스님 영결식 6일 해인사서
1만 사부대중 추위 속 애도 물결

한국불교의 대표 학승 지관 스님의 영결식이 1월 6일 해인사에서 진행됐다.

차가운 날씨 속에 진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 등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내빈들도 다수 참석해 지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지관 스님의 행장을 소개하면서 “스님은 동국대에서 교수, 불교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정각원장, 총장 등을 역임하며 종립교육도량의 현대적 진흥 및 후학양성 그리고 교육행정에 헌신했다. 율장 및 교단사 연구에 매진해 승단운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종교평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던진 대선지식이셨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은 역사 속에 겹겹이 쌓여 있던 한국불교사의 지층들을 낱낱이 풀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면목을 바로 세워주신 종장이셨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무봉탑을 만들어 스님께 올리겠다. 사바로 돌아오시어 한 중생도 남김없이 제도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추도사에서 “가산지관 대종사의 걸음걸음은 문수불이요, 허공의 뼛속을 뚫는 법등이었다.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근근한 근간이셨다. 가산지관 대종사여 생사가 없는 곳에서, 생사가 있는 곳에서 조사의 정법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고 추모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원행 스님은 조사에서 “남은 후학들은 큰스님께서 일평생 노심초사했던 유업을 이을 것이다. 사부대중 모두 부단히 탁마해 종단의 가풍을 바로 세워 존경받는 승단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종단이 앞장서고 25개 교구본사가 힘을 합쳐 2000만 사부대중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짐한다”고 밝혔다.



1만여 대중들은 지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르며 스님의 유지를 잇기를 서원했다. 사진은 스님의 법구를 경국사에서 해인사로 이운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종사는 일찍이 우리 종문에 귀의해 일념정진으로 삼장을 통달하고 일승의 현의를 터득해 교학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종문을 빛낸 눈 밝은 종장이었습니다. 종사는 임운자재하는 법계의 자유인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안심입명처에 성색이 사라졌으니 어떤 것이 종사의 본래면목입니까

불교 면목 바로 세운 종장
“환도중생 지혜보장 여소서”
정부 금관문화훈장 추서

호계원장 법등 스님도 조사를 밝히고 “스님 가신 길을 이정표 삼아 올곧은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의문을 보내고 지관 스님의 입적을 추도했다. 정부는 또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교화에 노력한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문광부 장관이 대독한 조의문에서 “대종사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참으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대종사는 입적하셨지만 당부대로 모든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에서는 각 계 대표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밀운 대종사 등 원로의원들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 등 원로의원·대종사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또한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오코 스님,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베이 스님, 태고종 부원장 청봉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등도 헌화에 참여했다.

스님들의 헌화가 끝난 뒤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양숙 여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통합진보당 심상정 대표, 국회 정각회 최병국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신성범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최재성 의원(민주 통합당) 등이 헌화를 했다.

영결식 후에는 1500장의 만장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속에서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의 ‘혜등서거(慧燈西去; 지혜의 등이 꺼지다)’가 만장의 앞 길을 열었다. 그 뒤를 수많은 사부대중이 스님의 법구를 뒤따르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지관 스님의 다비장은 성철 스님과 혜암 스님의 다비를 치룬 곳이다. 사부대중들은 다비장을 가득채운 채 합장을 하고 스님의 법구를 맞이했다. 스님의 법구가 지화로 단장된 연화대로 들어가고 거화의식이 진행되자 보살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합장을 한 채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문도 스님들과 해인사 스님들은 다비가 끝날 때까지 다비장을 지키며 외호할 예정이며, 사리 공개 여부는 아직 문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지관 스님의 은상좌 세민 스님은 “은사스님을 떠나보내려니 잘 모시지 못하고 건강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멘다.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스승이셨다. 엄한 경책과 자비의 미소를 지닌 스님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前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도 엄하신 분이었다. 굳은 의지로 불교 자주성 확립과 종교화합을 위해 노력하셨다. 지관 스님이 강원에 계실 때 강의하신 모든 교재와 자료가 40권 분량으로 발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뤄진 지관 스님의 영결식에는 1만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결식장에서 애틋함을 표하는 맏상좌 세민 스님



해인사 다비장에서 엄수된 지관 대종사 다비 모습

떠나심 슬퍼함에는 모두 한마음

빈소에 정·관계 인사 및 불자들 조문 발길
이웃종교·조불련·일한불교협도 조전

지관 스님의 입적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울 경국사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일 밤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문했다. 자승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종사께서 가시는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3일 오전 9시 30분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경국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생전에 뵈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에 오셨을 때 〈가산불교대사림〉을 완성하시겠다고 책을 가져오신 일이 있다”며 스님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친필로 “높은 인품과 학품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남겨 지관 스님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후에도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등 교역직 스님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이해찬 前 국무총리, 명진 스님 등도 조문했다.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불자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다. 각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지관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민주통합당 지도부 권영세·정범구·천정배 의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4일에는 정몽준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 이상득·조윤선 의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조계사를 찾았다.

5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의원, 유인촌 前 문화부 장관, 이재오 의원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분향 후 자승 스님을 예방한 유영숙 장관은 “훌륭하신 스님인데 안타깝게 됐다”며 조의를 표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도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3일, 정진석 천주교 추기경도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진심으로 애도하며 불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평생 학문에 정진하시면서도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지관 스님의 입적은 큰 어른을 잃은 국민들의 큰 슬픔이다”고 애도했다.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같은날 조전을 조계종에 발송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불교 발전과 종교간 화합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해 많은 불자들과 슬픔을 함께한다. 지관 스님께서 보여주신 화합과 일치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같은 날 애도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대종사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수많은 불교 저서는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학이 걸어가야 할 훌륭한 수행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과 평화를 위해 솔선했던 모습과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큰스님의 따뜻한 이타행은 인천의 사표가 되어 길이 기억될 것이다”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도 4일 조계종에 조문을 발송했다. 조불련은 “지관 스님은 학승으로서 불교의 현대화,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6·15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현실참여행에 헌신했다. 조계종 사부대중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자주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불심화합해 용맹정진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도 6일 조전을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마야바야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은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생전 오랜 세월에 걸친 지도와 깊은 우정에 감사하다. 특히 한일불교 교류를 위해 전력하신 것에 경의를 바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경국사 지관 스님의 빈소에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산불교대사림’을 전하던 스님을 회고하며 큰스님의 열반을 아쉬워했다.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를 상징)

졸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일 주 문



약사여래기도 및 방생법회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1월 12~14일 충주 선묵원에서 약사여래기도 및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02)900-0193



부산 정토법당 개원법회

정토회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1월 14일 부산 사하정토법당 즉문즉설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51)253-9997



선사상 임제록 강의 진행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은 1월 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선사상 임제록 강의를 진행했다.



나눔실천승가회 성금 전달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나눔실천승가회장)은 구랍 26일 마산 사랑실은교통봉사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백혈병 아동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불교서각종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위문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스님은 구랍 8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암 스님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여수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은 구랍 30일 광주소년원협의회에서 소년원보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상 스님 독거노인돕기 소장전

대구 화성사 주지 도상 스님은 구랍 27~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독거노인 돕기 소장전을 개최했다.



기초불교 영어강좌 수강생 모집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제24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1월 7일~3월 27일 10주간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실시한다. (02)722-2206



동국대 고일석 교수, IEEE HMPC 공로상 수상

고일석 경주 동국대 교수(컴퓨터공학부)는 구랍 29일 IEEE HMPC 36주년 기념식에서 학계 IT분야를 대표해 공로상을 수상했다.



불교와 미디어 강연

방송인 이계진씨는 1월 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교와 미디어'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내 꿈 아닌 대한민국 꿈 꾸겠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출판기념회서 밝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후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최근 통일전문가이자 국가 경영 전략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은 창조적 국가운영 전략과 나라사랑에 대한 자신의 삶과 철학, 불교 인연을 담은 〈이 나라에 국혼(國魂)은 있는가〉를 출간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1월 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민생각'(가칭)이라는 신당창당을 준비 중인 박세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은 2~3년 내 근본적인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수 개월간은 안정된 듯 보이겠지만 결국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중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나 속국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가 힘을 합쳐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 신(新)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2000년대부터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꿈꿔왔다"며 "한용운 스님이 '님만이 님이 아니요, 그리운 것은 모두 나의 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꼭 나의 꿈만을 꾸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꿈을 꾸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이 말하는 선진화 국가는 모든 면에서 성숙하면서 '세계 1등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이야 말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이고 독립의 완성이다. 신 통일시대는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며 "신 통일시대가 오면 경제 고통과 실업, 양극화, 교육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욱일승천하는 한반도 경제를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서기 위해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로 합쳐야 하며, 우리가 약소국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은 항상 큰 꿈을 품고 살면 힘이 들 때가 적지 않다. 박세일 이사장 역시 "올바른 일이라 생각되면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성격으로 인해, 때로는 여러 여건에서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회고했다.

박 이사장은 "이럴 때 마다 자신에게 항상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였다"고 고백했다. 박 이사장은 저서에서 "20~30대에 불교는 나에게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의 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었다. 하지만 50~60대가 되면서 평화와 위안을 주는 도반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이사장의 불교인연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됐다. 어머니를 따라 과천 청계사에 간 박세일 이사장은 우연히 금오 스님이 쓰신 '마음 찾는 길'이란 글을 읽고 환희를 느꼈다고 한다. 이후 박 이사장은 〈수능엄경〉을 독학하며 불교를 공부했다.

특히 박세일 이사장은 외조부와 이모가 모두 스님이어서 불교와 남다를 인연을 갖고 있다. 박 이사장은 책에서 "1966년 서울법대 불교모임인 '법불회'에 가입해, 성철 스님을 모시고 문경 김용사에 여름수련회를 갔다. 그때 〈육조단경〉을 설법하던 성철 스님이 나를 부르더니 '자네 머리 깎을 생각 없는가?'라고 물었다"며 "아마 그때 스님이 됐다면 나의 인생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생각'은 11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정 기자

지관 스님 법랍 66년 주요행장

■ 학력
1963년 7월 30일 경남대 종교학과 졸업
1969년 8월 30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
1972년 9월 4일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76년 9월 4일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

■ 경력
1965년 11월 25일~ 1968년 8월 10일 통합종단 초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1970년 1월 12일~ 1970년 10월 5일 양주 흥국사 주지 역임
1970년 11월 20일~ 1972년 10월 23일 해인사 주지 역임
1983년 5월 10일~ 2012년 1월 현재 불교대사림편찬·간행 중
1986년 1월 16일~ 1990년 2월 21일 동국대 제11대 총장 역임
1987년 4월 26일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 위촉
1990년 12월 13일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2001년 1월 17일~ 2005년 10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2004년 5월 10일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
2005년 10월 31일~ 2009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2005년 11월 20일~ 2008년 8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추대
2006년 10월 25일~ 2012년 1월 현재 해인총림전계사 추대
2009년 10월 8일 조계사 사리탑·사적비 건립

■ 포상
2001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2005년 8월 12일 만해학술대상
2012년 1월 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금관문화훈장 서훈

■ 저서
〈가산불교대사림 가산불교대사림〉 권1~12 / 〈교감역주력대고승비문〉 권1~6 / 〈한국고승비문총집 조선조·근현대〉 / 〈치문경훈주해〉 / 〈대혜서장주해〉 / 〈규봉도서주해〉 / 〈고봉선요주해〉 / 〈보조절요주해〉 / 〈능엄경약해〉 / 〈비구니계율연구〉 / 〈계율론〉 / 〈한국불교계율전통-한국불교계법의 자주적전승〉 / 〈선종약사〉 / 〈불교교단발달사〉 / 〈조계종사〉 외 다수.

■ 연구논문
〈간당작법에 대한 고찰〉 〈경덕전등록 해제 및 서문 역주〉 〈경설상의 관음신앙〉 〈경전상에 나타난 효〉 〈곡성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문〉 〈교감역주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비문〉 〈교감역주 개성 흥왕사 대각국사묘지명〉 〈교감역주 고려 영취산 대자은현화사창건비명〉 〈현대의 승가상〉 외 다수.

"청년불자 문화 모델 창출 주력"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5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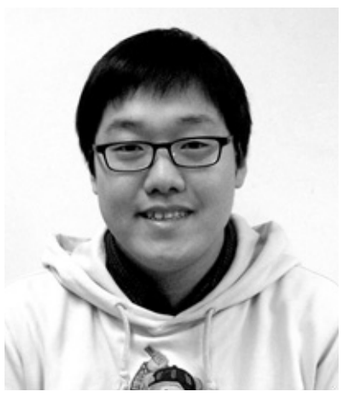
구랍 24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회에서 제50대 회장으로 최경환 군(한양대·25) 이 선출됐다. 최경환 회장은 "침체된 대학생 불교운동을 다시 일으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 2011년 대불련 서울지부장으로 활동한 하면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최 군은 "대학생들의 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계층별 따른 교육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복무 시절, 우연히 〈법구경〉을 읽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최경환 군은 세계화에 발맞춰 ▷다양한 해외 사업 방안 모색 ▷스마트팀을 통한 회원 교류확대 ▷청년 불자 문화 모델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주민 문제, 통일문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법우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 혼란스러운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대불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대에 대해서도 법우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러운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지관 스님 유훈장(원문 요약)

나는 금년 80세를 맞이하면서 그간 부처님의 음덕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므로 양가(속가와 불가)에 대해 부끄러울뿐 미련은 없다. 다비식은 간소하게 치르되 영단의 꾸밈과 차림세 몇가지, 상여의 장엄, 화장대의 꽃장엄도 일체 하지 말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주된 사업은 가산불교대사림이니 현재 12권까지 출간됐고, 아직 8, 9권 정도 남은 완간이다. 앞으로 연구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맡아온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고옥 현원 연구실장에게 대사림 완간을 위해 책임을 맡기노니 이 사업을 같이 해온 김영욱 박사와 한명숙 박사를 비롯해 초기부터 협조해온 여러 교수님(연구원)들이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종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이 사업이 외세의 간섭과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한편 나의 문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하려거나 간섭하지 말라.

문도들은 항상 문중의 화합을 도모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되 권력분야와 파멸조성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자의 본령과 출가한 초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 경국사(금강반야대) 내 방에 있는 책과 소지품은 모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기증한다. **불기 2555년(2010) 음 5월 11일(양(육월 12일) 자운문인 이지관**

동방불교대학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자격이 주어지며 졸업할 경우 선덕법계를 품수한다.
2. 본교 졸업과 함께 선덕법계를 득한 자가 다시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당해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과	모집인원		편제	비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과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2012. 2. 20(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2. 2. 20(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2. 2. 21(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2. 2. 21(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포교사자격 및 법계 품수와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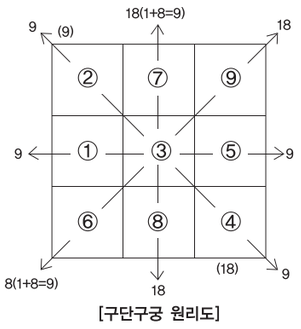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성도재일 맞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도재일은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날로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임진년 새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절로, 1월 1일 각 지역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양한 수행정진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종단이 모여 부처님 깨달음을 경축했다.

서울 조계사 역시 1월 10일까지 성도재일 점등을 진행하며 성도재일을 기념했다. 화성 용주사에서는 구랍 29일~1월 1일 효행문화원에서 참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3박4일 동안 참선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불심을 키우는 철야용맹정진 등이 진행됐다.

일산 여래사와 서울 화계사에서는 11일까지 불자들의 기도정진 법회가 봉행됐으며, 대구 동화사 남양주 봉선사 서울 공생선원 부산 홍법사 천안 각원사 등에서도 10일 철야정진 등이 이어졌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성련)는 구랍 28일 선묵 스님(도선사 주지)을 초청해 성도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밖에 양산 통도사는 1월 7일 특별 정진기도법회를 진행하는 부처님을 깨달음을 따르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성도재일 당일 보살계 수계식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서울 강북구사암연합회(회장 수암)는 1월 10일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성도절 맞이 자비의 쌀 나누기 한마당'을 마련하는 등 자비나눔 등을 실천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1월 1일 성도재일을 맞아 불자들이 사찰에서 신년기도를 겸한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삼보 수호 본분 다할 터"

임진년 하례법회서 도약 다짐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2012년 불심수도 부산의 움직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1월 6일 부산불교신년하례대법회를 시작으로 부산불교계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먼저 부산불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사명대사 열반인 추모 기념사업',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제4차 부산불교연합세미나, 제4회 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2012년 신도회 차원에서 자비나눔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 회장은 "빈곤국가 외국인 자녀의 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한 '나눔과 자비의 음악회'와 함께 화합하고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를 위해 '장애인 초정 무료 문화 행사', '불교복지단체 및 청소년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자대중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재가자는 삼보를 수호하고, 승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나라의 중대사가 있는 만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부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와 함께 1월 6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시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 등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원력을 모았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개회선언과 신년사, 봉행사, 축하 떡 나누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에서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도 마련됐다.

정여 스님은 신년 법어로 "임진년 한해는 우리나라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하례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신년하례대법회에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최인호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 허원제 국회의원 등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남 불교계, 청소년 보호 앞장

광주 소년원 아이들과 자매결연 부모의 마음으로 온정 나눠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년원생을 위한 교화활동에 전남지역 불교계가 앞장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소년원 고령정보산업학교는 학예발표회를 구랍 23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수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이사장 혜일 스님, 여수 달마사 정여 스님, 순천 봉덕사 보원 스님, 영월 심곡사 법산 스님을 비롯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 30여 명과 소년원생, 교화위원들이 참석했다.

학예회 행사는 1부 기념의식에 이어 총 8개 팀이 참여하는 2부 학예회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암사 신도들에 대한 소년보호위원 위촉식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지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소년원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주변사람들로부터 애정과 관심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참좋은우리절, 청소년법회 창립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구랍 31일 청년·청소년법회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된 참좋은우리절 청년·청소년법회 운영단은 국제청소년포상성취제를 활용한 문화, 봉사,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2월부터 전라북도 내 캄보디아 유학생들과 공동법회를 봉행하는 등 불교수행과 더불어 청년, 청소년들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은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곧 보살도"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여법하게 하는 기본임을 잊지 말고 불법을 익히고 실천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종교구 예비 군승 교육입재식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1월 6일 부산 금련사에서 2012년 임관 예정인 예비 군승을 대상으로 입대전 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다.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 스님(내장사 주지) 주관으로 진행된 입대전 교육입재식에서 예비 군승 12명은 의식·설법·습의 등 구체적인 교육을 받았다.

2012년 임관예정인 군승들은 4월 18일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입교해 10주간의 훈련을 받고 7월 1일 임관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주교도소 진성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전주교도소 교정위원과 귀휴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마이산탑사 주지)이 구랍 30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진성 스님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탑사 주지로 부임받은 후 지금까지 수년간 탑사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고종 총무원 재무국장, 전북경찰청·덕진경찰서 경승, 복지단체 (사)나누우리 재정이사 등을 맡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원불교조계종 임진년 신년하례법회



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 석정산)은 1월 5일 총무원 경남 양산 불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장 및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장, 종회의장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봉 스님은 법회에서 "내 마음 하나에 온갖 법이 다 살아나고 없어지는 것이니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머무는 곳마다 깨달음이 있으라"며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하찮은 허물도 두려워하는 올바른 수행자가 돼야 정토세계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선각종 초대 종정 영담 스님 1주기 추모재

4일 강진 옴천사서 봉행

대한불교 선각종 정업 영담 스님의 1주기 추모재가 1월 4일 강진 옴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들이 참가했다.

정암 스님은 추모사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을 대하듯 하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귀에 들린다"며 "선각종 종도들은 앞으로 큰스님이 남기신 가정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대한불교 선각종 초대 종정으로 강진 무위사, 영암 망월사, 강진 고성사 주지를 역임 했고, 영암 천황사, 광주 동광사 등을 창건하고, 강진 자비정사의 조실로 주석해 2000년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영담 스님은 지난해 1월 14일 강진 자비정사에서 세수는 98세, 법납은 70세에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9년 역사와 그 바탕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2년 동산불교대학 40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 토요반(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무진장 대종사(본대학학장), 최종석 교수(금강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윤열수 교수(동국대) 활안 스님(동산대), 최봉수 교수(대원대) 김형준 교수(동산대), 묘주 스님(동국대)
2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황순일 교수(동국대),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 교수(동산대) 주명철 교수(동방대학원), 정엄 스님(승가대) 종석 스님(승가대), 보각 스님(승가대)

- 불교다도학과(3년): 3월 6일(매주-화) 선혜 스님, 오후 2시
-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3월 7일(매주-수) 정산 스님,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3년): 3월 8일(매주-목) 법인 스님, 오전 10시 30분
- 불교한문학과(2년)(정규,통신): 3월 8일(매주-목) 만춘 스님, 오후 7시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학금 25만원
- 원서교부및 접수
  불교학과 | (2012년 1월 2일 ~ 2012년 2월 4일)
-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12년 2월 4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개강
-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여수엑스포 해상무대 조감도

“여수에서 한국불교 세계화 이룰 것”

여수엑스포 122일 앞둔 호남 불교계
사찰음식 · 세계연등 퍼레이드 등 진행

지난 5일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에서 운영하는 CNNgo 웹사이트는 ‘2012년 꼭 가봐야 할 최고의 여행지 7곳’ 가운데 1위로 전남 여수를 선정했다. CNNgo는 5월 12일~8월 12일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여수 바다 위에 전시관, 멀티미디어 쇼, 해양체험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멋진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122일 남았다. 엑스포 개최를 코앞에 두고 호남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봤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엑스포 · 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함께 열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여수시 신항 일대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106개 나라의 해양 기술과 보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9개 국제기구가 전시에 참여한다.

여수를 비롯한 일대 호남지역 사찰들은 이번 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되는 만큼 새해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는 전 세계의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WFB)가 여수에서 개최돼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WFB 한국대회는 6월 11~16일 ‘21세기의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이와 함께 17차 WFBY 세계불교도청년대회, 제9차 WBU 세계불교대학회의 등도 함께 열린다.

WFB는 1950년 스리랑카에서 결성한 세계범불교기구로 2년마다 각국을 순회하면서 세계불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 종단에서는 2011년 11월 23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한국대회 조직위원회(회장 자승)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해 왔다.

염정호 WFB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세계불교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인류평화와 번영’이라는 WFB 대회 취지를 살리면서 여수엑스포의 성공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여수엑스포와 WFB 한국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아시아권 나라들은 불교에 친숙하다 보니, 이번 여수엑스포와 WFB 한국대회에서는 한국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WFB 한국대회는 여수엑스포와 더불어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한국문화와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세계불교도대회에서는 6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화려한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된다.

염정호 사무총장은 “세계불교비즈니스포럼을 통해 불교문화와 컨텐츠 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과 아시아종교평화회의, 상임분과회의, 수륙재, 방생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각국의 세계연등 퍼레이드가 엑스포장 내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이밖에도 엑스포 공연장에서 불교전통문화 공연 등과 더불어 사찰음식 전시관 및 무료시식도 함께 진행 되므로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준비 전념

여수 흥국사 · 향일암,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등 전남지역 사찰들은 여수엑스포 개최를 맞아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유치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여수엑스포에는 1000만 명 이상의 내 · 외국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여수와 연결되는 광역도로망 건설 등 교통인프라를 확대 · 구축하고, 숙박시설 마련을 위해 건설 확충을 시급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숙박시설의 보안책으로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 등 두 곳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추진 중이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시간 권역 내까지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을 유도 · 계획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및 이순신대교,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더욱 확충되면서 전라도 지역 내 사찰들의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순천 송광사는 여수엑스포 지정 템플스테이 사찰로 선정돼 2011년 9월 불교문화역사관 및 남도전통문화 기공식을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여수엑스포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15년에는 송광사 불교문화역사관이 호남불교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정호 사무총장은 “여수 보성 고흥 남해 하동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사찰까지 연계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불교의 활성화와 불교를 알리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불교 위상 높이고 호남 불교 활성화”

틱낫한 등 세계 고승 법회도 준비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국제행사의 명성에 걸 맞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수 포교중심도량인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났다. 스님은 2012년 여수에서 열릴 WFB 한국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두 차례의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한껏 들뜬 목소리였다.

현재 WFB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이미 80~90%의 행사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WFB 한국대회는 정부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진행을 준비 중이다.

지역불교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진옥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호남권에서 국제적인 행사들이 연이어 치러지다 보니 자연스레 어깨가 무거워 진다.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호남불교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WFB 한국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의 법회를 많이 열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틱낫한, 파욱 스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지도자들의 법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옥 스님은 “호남불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의 깊이가 짧다. 때문에 이번 국제적 행사들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권 지역의 사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남방불교, 일본 · 중국불교에 비해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진옥 스님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사찰들이 합심돼야 한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남은 기간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불교문화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도 함께 깃들어 있어, 이 기회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평(謁平)승가회 회원 환영

귀의 삼보하옵고
경주 이씨 시조 알평공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의 승단을 이루어 호국불교 이념으로
청정한 모임을 갖고자 경주 이씨 문중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난 5회차 모임을 영천 법융사에서 가졌으며 회원18명이 동참하여 도일큰스님, 도성큰스님께서
증명을 해주시었고 신규 가입한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지준스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대덕큰스님들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어 회장 원각스님과 회원스님들이 환영을 하였으며
차기모임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갖기로 결의하여 통보드립니다

제6차 모임 공고

◆ 모임일시 / 불기2556(2012년)년 1월18일(수요일) 오전10시
◆ 모임장소 / 통도사 성보박물관 회의실
◆ 자격조건 / 알평공 후손 중 경주이씨 문중승려(비구, 비구니)
◆ 신청방법 / 알평승가회 신청양식 1통, 사진 1매
입회비 없음. (2개월마다 1회 모임. 회비 3만원)
◆ 연 락 처 / 회 장 : 원각스님 010-5290-4209
부 회 장 : 중천스님 011-707-6610
사무총장 : 능인스님 010-3900-3050
◆ 사 무 처 / 053)325-0400, 팩스 : 053)325-4848

* 경주이씨 문중 승려들 모임이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국 불 교 알 평 승 가 회
증명대법주 만옹도일 큰스님 영공도성 큰스님
회 장 원각 합장 부회장 중천 합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잘 살펴서 제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의 2600주년 성도절 법문

임진년 새해 새날이 시작된 1월 1일,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이 도를 이룬 성도절이기도 했다. 성도절을 전후로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 같이 수행하여 뭇 중생의 성불하기를 염원해 법회를 봉행하고 철야정진을 했다. 아래는 구랍 31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성도절 철야정진을 앞두고 법문한 원장 법현 스님의 법문이다. **편집자 주**

축하합니다! 싯다르타가 부처님 되심을 축하하고, 여러분은 이제 수행하여 부처님 되실 것이니 축하합니다! 내일은 싯다르타가 6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스스로 붓다임을 확인하여 고요한 기쁨을 누린 날입니다. 그것도 2600주년 깨달음 얻으신 날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날입니까? 남방에서는 태어난 날도 깨달은 날도 5월 보름이라고 하는데, 뒤에 전달받은 북방에서는 날짜 계산법의 차이로 태어난 날은 4월 초파일, 깨달은 날은 12월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바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날이어서 붓다의 뒤를 이을 우리들은 붓다처럼 용맹정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붓다가 거의 6년 동안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대로 선정수행과 고행을 열심히 하고 스승들의 인가를 받았으나 온전히 고요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으로 약해진 몸을 씻고 유미죽을 먹어 기운을 차린 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용맹정진한 기간이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성도일을 앞두고 일주일동안 정진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중국에서도 참선으로 정진하는 것을 선칠(禪七), 염불로 정진하는 것은 불칠(佛七)이라하여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불교에 입문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평택의 자그마한 비구니도량에서 50분 참선, 10분 휴식으로 밤을 샜습니다. 눈을 감고하는지 뜨고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하는 참선이었지만 스님의 새벽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원숭이놀음 한 것 아닌가? 싯다르타를 본 샛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멋모르고 했지만 그 때의 밤샘참선이 기반이 되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붓다처럼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도 또한 여러 생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 열린선원에서는 오늘의 정진을 그저 철야정진(徹夜精進)이라 하지 않고 우리말로 '밤샘참선' 이라 합니다. 다른 날은 절도 하고, 염불도 하며, 참선도 하는 등 다양한 수행법으로 정진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참선으로 밤을 새자는 뜻이지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경전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마치 큰 나무들이 빽빽한 숲 속을 헤매다가 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발견 한 것 같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도시를 복구하여 다시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나도 그와 같이 옛 길을 발견 한 것이다. 내가 발견한 옛 길이란 옛날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보리수 아래서 옛사람 길 찾아
6년고행 마치고 깨달음 얻은날
부처님따라 정진하는 성도절
우리도 참선해 옛길 밝혀야

재미있지요? 처음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옛날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면 옛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마음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루었네. 온갖 갈애(渴愛, tanha)가 다 끝내어 버렸네." 형성된 것은 다 부서집니다. 그러기에 부서지지 않는 고요한 기쁨인 열반(涅槃, nibbana)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인 열반을 이루면 온갖 갈애가 없어지고, 갈애를 모두 없애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룹니다. '열반이란 깨달은 상태' 를 말하는 것인지, '열반이라는 것을 보아야 깨달음' 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수없는 삶의 괴로움을 갖게 하는 윤회의 원인인 집짓기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읊었습니다. "너는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 너의 모든 서까래 부서지고 마룻대 또한 부러 졌도다."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짓는 이를 찾아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오 집 짓는 이여, 드디어 너를 찾아냈도다"라고 그 첫 기쁨을 노래하셨지요. 집 짓는 이라고 비유되는 마음(心)과 마음부수(心所)의 작용 그리고 그것들이 지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규칙들(法, dhamma)을 잘 살펴서 알게 되면 집짓는 이가 집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햇살이 들어오기 전에는 곰팡이 등 균들이 살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지만 밝고 따뜻한 햇볕이 쬐면 균들이 없어지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생겨난 것은 변하게 마련이고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에 비유하면 아무리 지식과 돈과 아름다움이 흘러넘쳐도 끝내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흐름에 밀려서 스스로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수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은 언제나 실로 괴로운 것"이라고 말이지요. 세상에 태어난 누가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난 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여러 곳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이들도 모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부처님 말씀을 빌어 말하자면 "그러나 찾지 못한 채 수많은 태어남의 윤회 속을 줄곧 서둘러 왔었네" 때문입니다. 바로 집짓는 이를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지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지요. 병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인지, 음식의 문제인지, 휴식의 문제인지, 과로나 부딪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운 이유, 괴로운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이유 즉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에 들끓고 슬픔에 가라앉기를 계속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에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석하신 대중 여러분을 비롯해 "누구나 이 법문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청정한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면 부처님처럼 윤회에서 벗어나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쬐끔' 해도 될까요? 덮어놓고 오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수행하되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등각(正等覺)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라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6년 동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했던 선정(禪定, samatha)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것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낱 마음이 되지 않고 온 마음(專念, sati)이 되게 하여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잘 살피는 것을 위빳사나(觀, vipassana)라고 합니다. 몸(身, kaya)과 감각(受, vedana)과 마음(心, citta)과 지각대상(法, dhamma)을 살피는 것이 바로 붓다에 이르는 뛰어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여 전생(前生)도 보고, 업(業)의 작용도 알고, 연기(緣起)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고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얻으신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 괴로움 있어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 알아야
화두 통해 깨달음 얻으려면
문제 알았으니 답에 집중을

이런 말씀을 제가 무엇으로 했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시지요? 그냥 다 이해가 바로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말하는 사람의 여러 조건과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참뜻(眞意), 본뜻(本意), 숨은 뜻(密意), 행간의 뜻(間意)' 을 알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관계있는 이와도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송시대 수행자들이 말씀(話頭)을 주제로 명상하게 한 것이 간화선(看話禪)의 전통입니다. 화두의 두(頭)는 뜻이 없는 허사라 '말머리' 가 아니라 '말, 말씀' 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불교전파가 이루어져 간화선 수행전통이 활발합니다.



성도절날 불교에 입문한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밤샘 참선하던 고교시절을 회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있어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문했다.

오늘 여러분은 위빳사나를 수행하든, 간화선을 수행하든 각자의 기호와 해오던 방법을 따라서 하십시오. 위빳사나를 바로 하기는 힘들 것이니 사마타를 하시는 분은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코를 통해 드나들면서 부딪치는 접촉점을 찾아보십시오. 화두를 어느 스승으로부터 받으신 분은 그것으로 정진하시고 오늘 처음이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육체가 온 것인가? 정신이 온 것인가?' 를 문제 삼아 해답을 구해보십시오. 주의할 것은 문제는 이미 알았으니 답을 찾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수행하든 몸과 마음의 현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잘 살펴서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말합시다! 제대로 생활합시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쟁평화중앙교원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덕현 벽운

부종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이착 무산 성일 현광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벽 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 화 :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비폭력만 강조했다면 불교 없어졌을 것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끝)

평화를 선호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평화에 대한 접근법은 서론에서 제시한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즉 무력을 무력에 의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전쟁으로 대응한다는 정의의 전쟁론, 그리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중에서 평화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평화주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폭력이나 전쟁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중재(arbitration), 항복(surrender) 또는 이주(移住) 등이 사용돼야 한다. 평화주의에는 국가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정의의 전쟁이론(just war theory)에서부터 절대적 평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평화주의는 의무론적으로도 결과론적으로도 평화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입장이다. 의무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침략이나 전쟁 행위를 피해야 할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론적으로 침략적 행동이나 전쟁으로부터는 아무런 좋은 일이 나올 수 없으며 다수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주의는 ①전쟁의 절대적 금지, ②폭력의 절대적 금지, ③그리고 살생의 절대적 금지를 내세운다. 이 세 가지는 보통 중복되지만 대부분의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주의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살생과 전쟁에 대한 반대가 도출된다.

평화주의 안에서도 절대적 평화주의는 폭력과 전쟁을 상황과 관계없이, 또한 예외 없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절대적 평화주의는 도덕적 원칙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은 항상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적 평화주의는 비폭력을 종교적 계율로 보는 종교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악에 대한 비저항의 이상에 연결되어 있고 힌두교의 경우에는 간디(Gandhi)의 비폭력주의,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살생계에 연결되어 있다. 절대적 평화주의의 종교적 근거는 폭력에 대하여 보복 없이 폭력을 견디는 것이 가치 있다는 종교적 이념과 연결돼 있다.

조건적 또는 상대적 평화주의는 절대적 도덕 원칙이란 없다고 본다. 조건적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는 도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준 아래서는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인정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반대하는 핵 평화주의자들도 있다. 조건적 평화주의자들 중에는 아인슈타인과 러셀이 포함된다. 그들은 폭력과 전쟁을 비타협적으로 반대했지만 나치에 대한 전쟁을 지지했다. 평화주의가 전쟁에 개입할지의 여부는 전쟁의 성격에 달렸다는 견해이다.

불교의 평화주의는 모든 존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불살생이라는 불교계율의 관점에서 비폭력과 불살생을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 본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소승 불교적 관점은 절대적 평화주의에 해당하고 대승적 관점은 조건적 평화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소승적 관점인 절대적 평화주의의 문제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자들은 우선 그들이 비겁하고 무임승차자이며 배신자라고 주장한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필요할 때 정의를 실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자이고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반대자들의 눈에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군사력을 통해 생산되는 안보라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에 의해 보호를 받고 이익을 얻으면서 그런 공공재의 생산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다.

반대자들은 또한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 자기 손만 깨끗이 하려 하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요구들에 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앞에서 인용한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게 하는 비판이다. 평화주의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본다.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당한 사회질서의 필요성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필요로 한다고 본다.

대승불교는 원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우선시하고 계율에 경직되게 집착하는 기존 불교를 작은 수레를 타고 가는 소승이라 비판하고 자비실천과 중생구제라는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파불교가 일어나고 대소승이 갈라지기 이전의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불교경전 중에서 어느 것이 붓다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지는 붓다의 기본철학에 비추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붓다의 근본정신이 이 세상에서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붓다는 절대적 계율주의나 율법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 등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율법주의, 계율주의에 구속받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조건적 평화주의에 해당하는 대승불교의 평화이념이 불교의 근본정신에 가깝다고 본다. 절대적 평화주의에 가까운 소승불교의 평화이념은 앞에서 지적한 절대적 평화주의에 대한 반대론의 비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얼핏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군대에 평화유지군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왜일까. 무고한 희생을 막기위한 움직임에 종교의 철학적 기반 제공에서 평화이념은 새로이 발전했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가 평화 가져올지는 의문
대승불교는 무고한 희생 막기위한 방편적 폭력 허용했다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평화주의 이념은 불교의 분파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비폭력과 불살생을 신봉하는 아힘사를 절대적 도덕 원칙으로 삼는 쪽에서는 이를 절대적 법칙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와 여기서 파생된 호국불교에서는 아힘사를 무조건 지켜야 할 규칙이라 보는 입장이 아니다. 비폭력과 불살생이 붓다의 가르침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무고한 인생이 살육을 당할 때는 무기를 들고 적을 격퇴하는데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중도(中道)이다. 오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요 금욕주의 또는 고행은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붓다가 피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붓다의 아힘사는 희생동물로 공양의식을 하는 브라만교의 교의와 아힘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자이나교의 교의 사이의 중도이다. 붓다는 아힘사를 불교의 중요한 가치로 정했지만 그것을 자비의 실천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고 본다. 그것은 자비를 희생하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니다. 따라서 불교의 평화주의는 비폭력과 불살생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경직된 규칙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승적인 절대적 평화주의는 불교의 평화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불교는 상대적, 또는 조건적 평화주의에 해당한다. 율법에 집착하지 않고 죄 없는 생명을 구하고 무법적인 침략에 맞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 필요가 있을 때는 무기를 들고 참혹한 살생을 저지하는 것은 불교의 평화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승적인 절대적 평화주의는 붓다의 자비정신, 자리이타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아힘사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자는 것인데 자기 손과 자기 양심만 깨끗하기 위해서 무고한 인명이 살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통해서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무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임 승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호국불교는 붓다의 평화이념에 충실히 따랐다고 본다. 호국불교는 전란의 시대에 일반인들을 세속오계로 인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이 무자비한 살육이 되지 않도록 했고, 아힘사와 관련된 계율의 경직된 적용을 피함으로써 국가 민족을 구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한국의 호국불교는 또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양의 정의의 전쟁과 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고려 때는 승려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을 조직해서 싸웠고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의승병들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웠다. 그것은 각각 거란과 몽고의 침입으로 국토와 인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교가 비폭력과 불살생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했다면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생의 귀의처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 힘들다.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끝)

열반의 동의어 우빠사마

삼(Śam)에서 파생된 '우빠사마(upasama, Sk. upaśama)'에 대해 살펴보자. 이 단어는 산띠(santi)나 사마타(samatha)만큼 불교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빨리 문헌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우빠사마는 적정(寂靜), 적지(寂止), 휴식(休息), 지식(止息) 등으로 번역된다. '고요함'이라는 뜻이다.

그 용례는 "여래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바로 깨달아 눈(眼)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적정(寂靜, upasama)·증지(證智, abhiññā)·정각(正覺, sambodha)·열반(涅槃, nibbāna)으로 이끈다"는 정형구(定型句)와 "이것은 … 염리(厭離, nibbidā)·이탐(離貪, virāga)·멸(滅, nirodha)·적정·증지·정각·열반으로 이끄는" 등과 같은 정형구로 나타난다. 전자는 중도(中道)가 나타날 때의 정형구이고, 후자는 사성제(四聖諦) 혹은 팔정도(八正道)가 나타날 때의 정형구이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는 초기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설 혹은 수행도로서의 사성제 혹은 팔정도를 설할 때 주로 사용된다. '우빠사마'는 증지, 정각, 열반 혹은 염리, 이탐, 멸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물론 증지 이하의 말은 깨달음의 지혜 혹은 경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열반이라는 단어도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라는 단어는 산띠(santi) 혹은 산따(santa)의 구경적(究竟寂)인 열반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단어는 우빠사마누삿띠(upasamānussati)라든가 우빠사마딧타나(upsamādhiṭṭhāna)로도 쓰인다. 이를테면 upasamānussati (止息隨念)는 불수념(佛隨念, buddhānussati), 법수념(法隨念, dhammānussati), 승수념(僧隨念, saṅghānussati), 계수념(戒隨念, sīlānussati), 사수념(捨隨念, cāgānussati), 천수념(天隨念, devānussati), 안반념(安般念, ānāpānassati), 사념(死念, maraṇassati), 신지념(身至念, kāyagatāssati)과 같이 십수념(十隨念) 가운데 하나이다.

〈청정도론(清淨道論)〉에서는 "고요함(upasama)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모든 괴로움이 고요하게 가라앉음을 대상으로 한 염(念, sati)의 동의어이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괴로움의 고요함(upasama)이라 불리는 열반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빠사마는 열반이나 무위(無爲, asaṅkhata), 불사(不死, amata)의 덕(德, guṇa)과 대체된다. 따라서 십수념(十隨念) 중의 우빠사마도 열반이나 무위, 불사 등과 동의어로 구경적(究竟寂)을 의미한다.

우빠사마딧타나(upasamādhiṭṭhāna, 止息確立)는 지혜의 확립(paññā-adhiṭṭhāna), 진리의 확립(sacca-adhiṭṭhāna), 버림의 확립(cāga-adhiṭṭhāna)과 같이 네 가지 확립 중의 하나이다.

〈맛지마 니까야〉에서는 "지혜의 확립은 모든 괴로움의 멸진(滅盡)에 있어서 지(智)이며, 진리의 확립은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인 열반이며, 버림의 확립은 모든 의지처를 버림[捨離]이며, 우빠사마딧타나(upasamadhiṭṭhāna)는 탐(貪)·진(瞋)·치(癡)의 적멸(寂滅, upasama)이다"고 설해져 있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는 탐·진·치의 멸진(滅盡), 즉 모든 괴로움의 소멸, 열반 등과 같은 의미로 구경적(究竟寂)인 산띠(santi)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빠사마(upasama)라는 단어 자체가 단독으로 불교용어로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성제나 팔정도라는 초기불교의 사상과 관련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정형구로 사용됐다. 그래도 그 원래의 뜻은 상실되지 않고,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을 의미하며, 사성제나 팔정도 등 수습(修習)·증지(證智)에 의해 얻어지는 경지를 나타낸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돌·흙 등 자연친화 소재 사찰 담으로 좋아

담장(2)

사고석담장

사고석담장은 사괴석(四塊石)으로 쌓은 담장을 말한다. 사괴석이란 한 변이 5~6치(약 15~18cm) 가량 되는 정방형 돌인데, 사괴석이라 이름붙인 것은 한사람이 네 덩어리를 한 짐에 질 수 있는 정도의 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이 두 덩어리를 한 짐에 질 수 있는 괴석은 이괴석(二塊石)이라고 한다.

사고석담장은 사괴석을 벽돌 쌓듯이 첩첩이 올려 쌓은 것으로 줄눈은 석회반죽을 쓰며, 내민줄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석담장은 보통 장대석을 2~3단 정도 놓고 그 위에 사괴석을 쌓아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심미적으로는 조화의 미를 얻는다. 담장 위에는 기와를 얹는데 궁궐에서는 서까래를 걸어 목조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어 고품격의 담장을 만들기도 한다.

사고석담장은 품위가 있으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주는 까닭에 주로 궁궐의 바깥 담장에 많이 도입하였다.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대부가의 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사고석담장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왕실과 연관이 있는 사찰에서는 간혹 사고석담장을 쌓아 그러한 인연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관사의 담장을 꼽을 수 있다.

돌담

돌담은 자연석으로 쌓은 담장을 말하며, 돌각담이라고도 한다. 돌담의 주재료가 되는 자연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로 이것을 간단히 가공한 후 이를 맞추어 쌓아올리게 된다. 돌담을 쌓을 때에는 잡석과 회를 섞어 다진 기초 위에 자연석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담장을 쌓는데, 아랫단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 돌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담을 만들게 된다. 뒤채움은 잡석, 와편, 진흙을 밀실하게 넣되, 공극이 없도록한다. 이것 역시 구조적 안정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면석의 뒤뿌리는 긴 것과 짧은 것이 교차되도록 하며, 모서리돌은 면석보다 크고 뒤뿌리가 긴 것을 사용한다. 담장 위에는 기와를 잇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와를 얹지 않는 경우에는 상부를 잘 마무리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돌담은 여러 가지 규격의 돌을 가지고 얼기설기 쌓는 경우와 유사한 규격의 돌을 사용하여 가지런히 쌓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를 일반적으로 돌각담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돌담은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사용하며, 뒤채움없이 전·후면이 맞닿도록 자연스럽게 쌓는다. 이렇게 쌓은 돌담은 시공하기 좋아 산지사찰에서 많이 도입했다.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러운 미감을 얻을 수 있어서 산사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돌담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며, 가지런하고 안정된 미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사찰의 경우에는 사세에 따라 전자와 같은 돌각담을 쌓기도 하고 후자와 같은 가지런한 돌담을 쌓기도 한다.

개천서 돌 수집해 비스듬하게 리듬감있게 쌓아올린 운문사담
궁궐·사대부가 사고석 담장은 왕실 인연있던 진관사도 조성


토석담은 돌담과 더불어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산지사찰과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 사진은 직지사 토석담

돌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룡사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 매우 많다. 운문사 돌담은 주변을 흐르는 개천에서 수집한 돌을 각도를 주어 비스듬히 눕혀서 쌓았는데, 각 층마다 방향을 달리하여 리듬감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무늬를 보는 것 같아 흥미롭다. 특히 이 돌담은 사중의 스님들이 직접 쌓아서 만든 것으로 스님들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사찰의 경우 사고석 담장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진관사처럼 왕실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발견할 수 있다.


운문사 돌담은 사중 스님들이 직접 쌓아 만든 것으로 스님들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을 살필 수 있다.

토담

흙만으로 쌓은 토담은 빗물에 약하고 구조적으로도 취약하여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돌을 섞어 쌓기도 하는데, 이를 토석담이라고 한다. 토석담장은 지면에 닿는 부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큰 돌을 2~3단 쌓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담장을 올리기도 한다. 돌담과 마찬가지로 토석담 상부에도 기와를 얹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 목적도 있고, 멋을 부려 장식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리 사찰에서는 돌담과 더불어 토석담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담장으로 산지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높은 담장이다.

흙담은 흙을 이용해 판축기법으로 만든 담장이다. 판축기법이란 목재로 담장 폭에 맞도록 틀을 만들고 여기에 일정한 높이로 흙을 채워 다지고, 다시 흙을 채워 넣고 다지기를 반복하여 마치 시루떡 만들듯이 쌓아올리는 방법을 말한다. 담장표면은 목재거푸집을 떼어낸 그대로 두기도 하였지만 볏짚이나 풀에 진흙앙금을 풀어 맥질하여 빗물에 씻기지 않도록 마감하기도 했다. 비록 토담이라 하더라도 기와나 초가지붕을 얹기도 하여 멋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리 사찰에서는 이러한 흙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나 일본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생울

생울은 울타리에 나무를 심어 담장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울의 재료로 썼던 나무는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가 많았다. 생울로 쓰는 나무는 지엽이 밀생하고 나무 아랫부분에서부터 가지와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궁궐에서는 취병이라는 장식적 생울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취병은 시누대를 엮어서 일정한 높이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전후에 키가 낮고 지엽이 밀생한 키낮은 나무를 심거나 덩굴식물을 올려 여름에는 푸른 잎과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시누대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취병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식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생울이다. 동궐도에 보면,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들어가는 어수문 좌우에 취병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동궐도의 그림을 토대로 취병을 복원하여 아름다운 옛 경관을 볼 수 있다.

바자울

바자울은 갈대나 옥수수대, 싸리, 대나무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일정한 문양이 생기도록 엮어 만든 담장이다. 바자울은 생울과 함께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울타리이다. 특히 싸리나무는 한국의 산야에 흔히 자라는 나무로 잔가지가 많고 탄력이 있어 울타리재료로 인기가 있었다. 민가에서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싸리나무를 베어다가 발처럼 엮어 싸리울을 만들었다. 사찰에서도 이렇게 싸리나무나 대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어렵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다시 오면 한바탕 놀자” 일연 스님 목소리 들리는 듯



삼국유사의 도량
인각사

어떤 스님이 국존(國尊, 일연 스님)의 앞에 나아가 묻기를, “석존께서는 학림(鶴林, 쿠시나가라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드셨고, 화상은 인령(麟嶺,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하시니 그 상거(相去,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나이다.”

스님께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상거가 얼마냐?”

다시 말씀 드리기를, “그렇다면 지금과 예가 마땅히 변천함이 없어 분명하게 목전에 있나이다.”

스님께서 또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분명히 목전에 있다.”

다시 말씀 드리기를, “뿔을 세 개 가진 기린이 바다에 들어가고 공중에 걸린 조각달이 물속에서 나옵니다.”

스님께서 이르되, “훗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과 더불어 한바탕 놀자.”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화상께서 100년 후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일상생활, 이것뿐이다.”

“군왕과 더불어 하나의 무봉탑(無縫塔, 인간의 경지를 뛰어 넘은 솜씨로 만든 탑)을 조성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법을 묻고자 함이옵니다.”

“이 일은 모두 아는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스님은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으며, 몸을 보되 또한 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대법륜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佛事)를 하고 있느니라.”



파손되어 조각만 남은 보각국존정 조탑비

불후의 명저(名著)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문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다정하면서도 기상이 넘치는 법거량을 하면서 한 생애를 마감하는 일연 스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걸리지 않는 도인의 풍모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이 시원해 질 것입니다.

일연 스님은 법거량을 마치고 대중을 향해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지(痛痒之-有念 즉 인식의 세계)와 가렵지 않은 불통양지(不痛痒之-無念 즉 인식을 초월함)가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것이 곧 통양지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리치고 “이것은 불통양지라” 했고, 다시 세 번째 주장자를 내리치고는 “이것은 통지냐? 불통지냐?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상을 내려와 방장실로 돌아가서 조용히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입적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연출되는 일연 스님의 입적 상황은 ‘보각국존정조탑비(普覺國尊靜照塔碑, 보물 제428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1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일연 스님이 살았던 시기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절이었습니다. 정중부의 난(1170) 이후 무신정권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때 태어났고 세 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으로 전국토가 황폐화 되는 것을 모두 목도하며 중생고를 혹독하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수행과 강학 그리고 저술에 몰두한 일연 스님은 여러 사찰에서 수행했고 말년에 인각사에서 5년간 머물다 입적 했습니다. 한국 인문학의 기틀이 된 〈삼국유사〉는 인흥사에서 시작해 운문사에서 본격적으로 집필하고 인각사에서 마무리 한 역작입니다. 이 기행에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구구절절 드러내는 것은 지나치게 새삼스러울 것입니다.

일연 스님의 부도가 서 있는 인각사 마당에 서면 스산한 느낌이 듭니다. 이미 겨울이 깊었고 극락전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마당에 깔린 자갈 밟는 소리가 귀를 거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보각국사정조지탑(普覺國尊靜照之塔, 보물 제428호)’은 자연석을 딛고 서 있습니다. 팔각의 하대석과 다소 원형으로 옮겨가는 중대석 그리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대석의 가녀린 음각의 연꽃문양이 단출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연 스님의 명성에 비해 의외로 장엄하지 않은 부도 앞에서 탑의 조성 시기가 국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였음을 절감합니다.

비각 안의 탑비는 거의 파괴되어 글씨는 알아볼 수 없고 몸돌 조각만 일부 서 있습니다. 탑비가 파괴된 것은 몸돌의 서체가 왕희지체를 집자해 새긴 것이어서 글씨에 관심 있는 권력자들이 너도나도 탁본을 뜨고 관리를 하지 않은데다가 임진왜란의 병화까지 입은 탓입니다.

“다시 돌아 와 한 바탕 놀자” 약속하고 입적한 스승의 유체와 유적이 세월의 풍상에 그렇게 시달리는 동안 인각사 역시 쇄락의 길을 걷다가 근래에 불사를 시작했으니 시절인연이 맵고 차가움을 느낄 뿐입니다. 다행히 탑비의 탁본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전해지고 그것을 종괄하여 비문을 복원하고자 애쓴 학자들이 있어 거의 완역에 가까운 비문을 새긴 비석을 2006년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새로 세웠으니 그나마 위안입니다.

일연 스님의 탑비는 고려 충렬왕 당시의 문장가 민지(閔漬; 1248~1326)가 지었습니다.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하여 새긴 사람은 일연 스님의 제자 죽허(竹虛) 스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충렬왕은 재위 9년이 되는 해에 군신들에게 “나의 선왕들은 모두 석문(釋門; 불교 승단) 중에 덕이 높은 스님을 왕사로 모시고, 또 더 큰 스님은 국사로 추대하였거늘, 부덕한 과인만이 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지금 운문화상(운문사 주지인 일연 스님)은 도가 높고 덕이 커서 모든 국민이 숭앙하거늘 어찌 과인이 스님의 자택(慈澤)을 크게 입었음이랴! 마땅히 모든 국민과 함께 존숭하리라” 하고 스님을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일연 스님은 처음에는 사양 했으나 임금의 뜻이 간절하여 허락 했는데 칭호를 국존으로 모셨습니다.



보조국존정조탑과 석불좌의 모습. 탑비에는 내우외환의 시기를 살던 일연 스님의 입적 상황이 물 흐르듯 새겨져 있다.

5년 머물며 ‘삼국유사’ 완성 후 입적
왕희지체로 새긴 탑비 훼손 근래 복원
교학에 밝으면서 생사 자재하던 선승
여러 이적 가운데 일부 비문 소개

그런데 ‘국존’이라 칭한 배경은 ‘국사를 고쳐 국존이라 한 것은 대조(大朝 원나라를 가리킴)의 제도인 국사란 칭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짓밟히고 국가적 스승의 호칭도 바꿔야 하는 시대의 아픔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민지는 비문의 말미에 일연 스님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적(異跡)들을 열거하고 더 많은 이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미신으로 여길까봐 적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 보여 준다면 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일화 몇 토막이 비석 뒷면의 음기(陰記)에 들어있습니다. 산립(山立) 이라는 스님이 지은 이 음기 역시 여러 탁본들을 종합해 전체 해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눈길 끄는 이야기 하나를 읽습니다.

“국존의 행장을 살펴보니 그가 임종할 때 대중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다. 기(氣)도 다 끊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 선원(禪源) 정(頂) 스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 실성해 울부짖으면서 ‘황망 중에 탑을 세울 장소를 여쭤 볼 겨를이 없이 입적하셨으니 후회막급’이라며 대중들과 함께 탄식을 했다. 이때 스님께서 적정삼매로부터 조용히 깨어나 대중을 돌아보고 이르되 ‘여기서 동남쪽으로 5리(2Km)를 가면 숲이 있는데 지형의 기상이 청룡과 백호 등이 제대로 짜이고 안은한 곳이 있으니, 마치 고총(古塚)과 같다. 거기가 길상지인 명당이니 탑을 세우가 적합하다’ 하시고 다시 눈을 감았다.”

조금 황당한 감이 없지 않으나 생사에 무애자재했던 일연 스님의 일면목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습니다. 산립 스님은 일연 스님 제자들의 청에 의해 음기를 지었습니다. 비의 뒷면에 굳이 음기를 써서 새긴 이유는 일연 스님의 생애 가운데 비문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문도들의 면면을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탑과 탑비가 서 있는 절 마당 후미에 ‘일연스님 생애관’이 낮은 단층 건물로 지어져 인각사 출토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온기 풀린 빛으로 산마을의 한산한 절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해마다 일연 스님의 정신을 되살리고 〈삼국유사〉를 비롯한 저작(著作)들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때마다 일연 스님은 어느 한 관람객의 모습으로 인각사 마당에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왔으니 한바탕 놀아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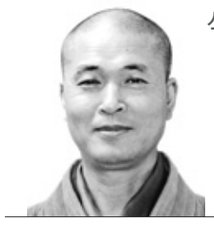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학인은 먼데서 왔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문에 들어섰지만 손살 같이 얼굴에 침을 뱉어 주리라."

問 學人遠來 請和尚指示 師云 纔入門便好驀面唾

선사들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것'에 대해서는 왜 꼭 이렇게 지시하는 것일까? 황벽 스님도 임제 스님에게 주장자 3타를 내렸을 뿐이다. 눈 뜬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것이 오히려 바르게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납자가 여기에 대하여 평을 하자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겠다.

선사들은 빈(賓)에게 감정이 없다.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자비심만 있을 뿐이다.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혹은 손가락을 자르고, 혹은 암흑에 가두어두기도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스승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멀쩡한 바보로 일평생 사느니 깨어난 불구자로 한평생 사는 것이 훨씬 다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즉시 절단하는 한 가닥의 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회남에서 오는 배는 도착했는가?"
학승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야아, 기쁘다. 도착했구나."

問 如何是直截一路 師云 淮南船子到也未云學人不會 師云 且喜到來

회(淮)는 하남성(河南省)의 동박산(桐迫山)에서 연원(淵源)하는 강의 이름이다. 그 남쪽을 회남(淮南)이라고 하고 북쪽을 회북이라고 한다. 아마도 회남에서 조주(趙州; 지역명)에 오는 길에 뱃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처음 방문한 자이거나 절에서 참선만하는 납자(衲子)라면 회남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조주 선사도 그것을 안다. 조주 선사는 학인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스스로 알게 한 것이다.

직절일로는 직절일구(直截一句)를 말한다. 직절일구는 '즉시 끊어내고 들어가는 한 마디'이다. 일체를 단번에 끊어내고 성인의 경지에 확 들어가는 한 마디, 오랫동안 본신(本身)을 잊어버리고 중생으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단번에 부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마디를 하라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조주 선사는 학승에게 회남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학승은 당연 모르고 있으므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조주 스님은 대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야아, 네가 이제 저 언덕에 도착했구나. 반갑다. 납자여!"라고 말한 것이다. 조주 선사는 학승이 스스로 체험 속에서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납자가 평을 하자면. "허, 그렇게 돌아오면 될 것을…"이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절에 와서 나를 욕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절에서 그대를 욕할 수 없어."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因什麼向院裡罵老僧云學人有何過 師云 老僧不能就院裡罵得?黎

절에 와서는 조용히 뜰을 구경하고, 간혹 스님을 만나면 공경히 합장하되 비굴해서는 안 된다. 할 일이 보이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울력에 동참해야 하고, 누가 삼보를 훼손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절에 와서 조용히 걷고, 예배하고, 일하고, 청수(淸水)를 마셔보라. 문득 그대가 곧 부처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면 그대는 천하를 얻은 것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사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그 외에 선사에게 뭘 물으면 선사를 욕하는 것이다. 적어도 선사들은 객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지 않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입적(入寂)



고요 속으로 떠난다. 의심할 수 없는 고요 속으로. 벗어놓은 몸이 그 동안의 이름과 기억을 태운다. 이름 몇 자와 한나절만에 다 타버린 기억. 고요 속으로 떠나는 이는 그게 다였다고 말한다.

이별이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슬프고,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기에 남아 있는 날들은 안타깝다. 눈물로 읽어 내린 조사(弔辭)도 밤새 촛불 밑에서 쓴 만장도 모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 고요 속으로 떠난 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누군가 또 고요 속으로 떠났다. 밤하늘엔 달이 하나. 무슨 뜻일까. 달빛 아래 숲이 하나. 무슨 뜻일까. 그는 이제 알았으리. 고요 속에서.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에게 귀의하라 〈대반열반경〉

거미는 자유가 없다. 그의 생존 자체가 거미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미줄은 그물이다. 물론 그 거미줄 위는 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거미는 그 삶의 조건 속에 가두어져 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저 거미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거미줄, 그물망, 이를 영어로는 넷(net)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 넷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마침내는 SNS라 부르는 최첨단의 통신망까지.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마침내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들이 인간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딘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종속변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침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문제는 우리가 고독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 고독,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약이다.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구도자
가르침에 귀의 스스로 길 찾아야

오늘날 진정으로 구도자가 있다면, 그는 이러한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일 것이다. 인터넷으로부터, 휴대전화로부터, 그리고 SNS의 그물 밖에서 노니는 한 마리 고기처럼 말이다. 자유인은 고독한 자이고, 고독한 자는 구도자다.

고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고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 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라는 이 지독한 풍토(風土)가 주는 병들은 고독을 통해서 치유해야 한다. 고독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어디에서고, 누구에 의해서도, 이 고독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부처님만이 고독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셨다.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강기희 옮김, 〈붓다의 마지막 여로〉)

이 말씀은 열반을 앞에 둔 부처님께서, 그의 열반 이후에 교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즘 말로 하면, '유훈통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래는 '비구의 모임은 내가 지도하고 있다' 든가, 혹은 '비구의 모임은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고 생각한 일은 결코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해주신 가르침에 귀의하여 우리 스스로 길을 찾고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셨다. 부처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금언이다. 부처님께서 '홀로결사' 의 주창자가 되신 까닭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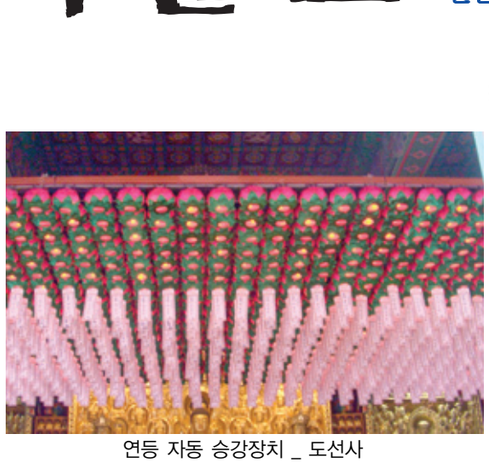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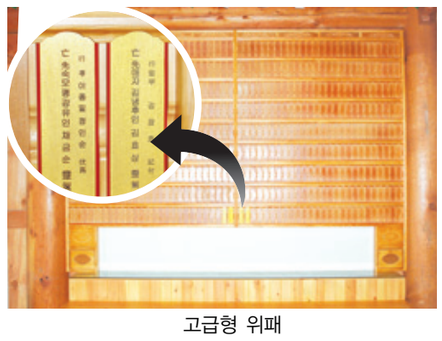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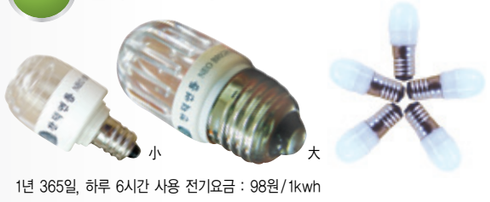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혜능 선사 법향에 한국 구도자들 다시 감동



홍콩 각수사 수봉선원을 방문한 연수단 일행을 재가불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이날 수봉선원 정진 현장은 연수단 스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달마 대사가 물길을 튼 세심정을 살펴보는 연수단



단장 지현 스님이 각수사에서 숭산 스님 영정에 분향하고있다.

불교문화사업단, 광저우 광효사 이어 홍콩 각수사 참배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구랍 12~17일 중국 광저우 · 홍콩 일대에서 진행한 제7회 2011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연수는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운영자 스님들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장을 느끼고 템플스테이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불교문화사업단 해외연수단은 13일 〈육조단경〉을 설한 대감사, 14일 오조 홍인 대사의 의발을 가지고 몸을 피한 혜능 선사가 15년 만에 삭발 수계하고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광효사 , 15일 마카오 성바오로 성당 16일 홍콩 각수사 수봉선원, 포우린 사원 등을 둘러보았다.

풍번문답, 광효사서 머리 깎다

연수단은 구랍 13일 광저우 시내에 위치한 광효사를 방문해 한중 불교 교류를 이어갔다.

광효사는 중국에서는 영남불교의 총본산으로 광저우가 생기기 전 광효사가 먼저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오조홍인 대사의 의발을 전해 받은 혜능 선사가 숨어 지내다 15년 만에 다시 삭발을 하고 구족계를 받은 곳이다. 삭발한 머리카락을 봉안한 8각 7층 전탑 양식의 예발탑이 있다.

혜능 선사가 머리를 깎게 된 일화가 바로 유명한 풍번문답(風幡問答)이다.

당시 법성사(現 광효사)서 진행된 인종법사의 열반경 강연에서 찰번(사찰 깃발)이 흔들려 대중 스님들이 바람과 깃대의 흔들림으로 분란이 일자 혜능 선사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일침한 것이다. 이를 본 인종 법사가 자신의 자리를 내주며 혜능 선사를 스승의 예로 대했고, 혜능

'육조단경' 사경 프로그램 참관
광효사 밍생 스님과 선문답

선사가 아직 계를 받지 못함에 수계의식을 열었다.

광효사 성보박물관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불교문화재와 함께 불교체험 공간이 함께 마련돼 있었다. 연수단은 중국불자들이 〈육조단경〉을 사경하는 모습을 보며 불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연수단은 의발탑과 달마에 앞서 중국에 왔던 인도 승려 지략 삼장이 502년 심은 중국 최초 보리수 등을 둘러보고 접견실에서 광효사 주지 밍생 스님을 만났다.

광효사 주지 밍생 스님과의 환담도 한중불교의 우호 증진과 함께 풍번문답을 비롯한 선문답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밍생 스님에게 단장 지현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차원의 한중불교의 우호 증진과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밍생 스님은 한국 템플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환담에서는 광효사 비풍비번(非風非幡) 선문답을 주제로 한 대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부단장 주경 스님은 밍생 스님에게 "바람도 깃대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답을 건넸고 밍생 스님은 "모두가 없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광효사를 방문하기에 앞서 연수단은 짧은 시간 혜능 선사가 시끌벅적한 시장통에서 유학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반인 대상으로 설법한 대감사를 방문했다. 현대의 도심포교당이다.

혜능 선사가 이 당시 대감사에서 설한 것을 모은 것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부처의 가르침에만 붙는 '경'(經)이 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혜능 선사의 선종에서의 위치를 가늠케 한다.

광저우 시장 한복판 사찰에서 선사의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숭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현장

연수단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장도 돌아봤다. 연수단은 구랍 16일 마지막 일정으로 홍콩 란타우섬에 위치한 각수사 수봉선원을 찾았다.

숭산 스님의 사리탑이 있는 각수사는 홍콩 대관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으며 수봉선원과 함께 홍콩에 위치한 선종 사

수봉선원 숭산 스님 뜻 이은 현장
재가불자 힘모아 선원 건립 감동

찰 중 하나다.

란타우 섬 산으로 둘러싸이고 바다 멀리 마카오가 내려다보이는 수봉선원은 숭산 스님의 생전 국제포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머나먼 홍콩 땅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스님과 외국인 재가불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며 정진하는 모습은 연수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1966년 일본 도쿄 홍법원을 시작으로 1969년 홍콩에 선원을 설립, 이어 1972년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전법의 길에 오른 숭산 스님의 대원력을 연수단은 직접 느꼈다.

각수사 재가불자들은 연수단 스님들에게 보시금을 각각 전달했다. 재가자들이 스님들을 외호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불교 전통이었다.

원주 원심 스님은 "러시아 등에서 여러 곳에서 온 스님들과 재가자 10여 명이 숭산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용맹정진 하고 있다. 각수사 수봉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십시일반 공양으로 지어진 곳으로 승보공양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시금을 받는 스님들과 올리는 재가불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공양의 참 의미를 되짚었다. 연수단은 각수사에 준비한 공양금을 전달했다. 이어 연수단 스님들은 숭산 스님 사리탑을 참배했다. 먼 이국땅에서 숭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뜻은 이어지고 있었다.

백담사 백거 스님은 "해외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불자들을 보니 많은 것을 느꼈다. 단순한 불교 체험을 넘어 템플스테이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말했다.

국제선센터 보관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갈 길이 멀다.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불교를 접하고 또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저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문화포교에 언제나 협력할 것

광효사 주지 밍생 스님



"혜능 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광효사와 조계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계종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광효사 주지 밍생 스님은 구랍 13일 연수단과의 만남에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중일불교대회 중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체험담을 털어놨다.

밍생 스님은 "교회가 사방에 있는 가운데서도 7층 건물의 사찰이 위용이 대단했다. 한국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포교, 대중화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현 스님이 "문화사업 전반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말하자 "밍생 스님은 "중국불교협회와 광동성불교협회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 얀 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3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헤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3월 출발

◇ 양곤 I 바간 I 헤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I 바간 I 헤오 I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I 장가계 I 원가계 I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圖所持者成就一切萬法消滅一切諸障碍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
(휴대)용으로 염가 普及합니다.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고삐 뚫을 구멍 없는 소’ 뜻 물음에 활연 대오

경허 스님 수행 일화① – 시체 즐비한 마을서 발심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조이다.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출생해 9세 때, 경기도 과천 청계산 에 있는 청계사로 출가했다. 법호는 경허(鏡虛), 법명은 성우(惺牛)이다.

경허 스님은 억불숭유로 바람 앞 촛불과 같던 때 선맥을 되살린 선지식이다. 큰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의 경지에 오른 스님의 도리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경허 스님의 행적은 어떤 때는 심산유곡에 깃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끄러운 저자 한복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스님은 ‘고삐 뚫을 구멍 없는 소’를 확연히 안 뒤 6년 동안의 보임(保任)을 마치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불태운 뒤 무애행(無碍行)에 나섰다.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맞아 만행보살 경허 스님의 일화 연재를 통해 선지식의 진면목을 들여다본다.



그림 · 박구원

경허 스님은 20대에 동학사(東鶴寺)에서 대강사로 이름을 떨친 대강백이었다. 스님은 경(經)은 물론이고 〈장자〉(莊子) 곧 〈남화경〉(南華經)까지 숙독(熟讀)해 내 · 외전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대강백이 머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학사 강원은 사방에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학인들로 초만원을 이뤘다.

1879년 여름, 강사 8년으로 30대에 접어든 경허 스님이 옛 은사 계허(桂虛) 스님을 뵈려고 경기 안양 근교 청계사(淸溪寺)로 향했다.

길을 가던 중 천안 근처에서 였다. 경허 스님은 갑작스런 뇌성 벽력과 함께 억수같이 퍼붓는 소낙비를 만나 어느 초가 처마 밑에 있어야 했다. 얼마 후 집 주인이 나타났다.

“송장 치우기에 진력이 났는데 누가 또 와 있담. 죽더라도 내 집에선 나가 죽으시오, 어서!”

혀를 차며 다짜고짜 스님의 등을 밀어내 그 집 멀리로 내 쫓았다.

경허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가 비를 피하려 했지만 이집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내 모는 게 아닌가.

“괴질로 사람이 다 죽어가는 판인데 뭐하러 여기 왔소? 여기까지 왔으니 스님도 살아가긴 어렵겠구려, 제발 이 집만은 떠나주시오.”

집집마다 호열자(콜레라)에 걸려 쓰러진 주검들이 즐비했다.

당시 콜레라는 전국적으로 불치의 전염병이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 그 촌락을 벗어난 경허 스님은 심한 현기증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다.

‘나 또한 전염병에 걸리면 죽지 않을 수 없다. 저 송장들과 다를 바 없는 나 역시 생사(生死)의 낭떠러지에 와 있지 않은가. 나하나 살고 죽는 문제도 수습할 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며 철없이 중 노릇을 하다니, 교리문자(教理文字)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신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처님의 길로 중생을 인도한다 함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라도 스스로가 생사를 영단(永斷)하는 길이 있다면 오직 참선(參禪)하는 길 밖에 더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스님은 한시가 소중했다. 경허 스님은 은사스님을 뵈러 청계사로 향하던 발걸음을 동학사로 되돌렸다.

돌아오는 동안에도 스님은 어서 생사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분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리 1700공안의 화두를 헤아려 보았으나 의심의 구름은 좀처럼 걷힐 줄 몰라 캄캄 절벽이었다.

갑자기 한 화두가 스님을 사로잡았다.

> **나하나 살고 죽는 문제도**
> **수습할 줄 모르면서**
> **중생을 인도 하겠다니**
> **참으로 어리석은 것**

나귀의 일 아직 안했는데 [驢事未去]
말의 일이 닥쳐 왔음이여 [馬事到來]

스님의 화두에 대한 의심은 더 큰 의심의 구름을 일으킬 뿐이었다. 한 생각에 젖어든 경허 스님은 동학사에 돌아오자마자 강원의 학인들을 다 흩어 버리고 조실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아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경허 스님은 영운(靈雲) 선사의 화두 ‘나귀의 일, 말의 일’을 참구했다. 좌선 삼매중 졸음이 몰려왔다. 조는 시간도 아까웠다. 스님은 수마를 쫓기 위해 물리치고자 날카로운 송곳을 턱 밑에 세워놓고 참선을 했다. 스님이 정진하다 깜빡 깜빡 졸 때마다 스님의 이마에는 선혈이 흘렀다. 살이 찔린 자리에는 피가 엉겨 붙었다. 얼굴은 흡사 두꺼비 등껍질과 같았다.

마침내! 경허 스님은 수마(睡魔)의 조복을 받으며 화두에 대한 의심이 샘물 솟듯 하여 한 생각이 영원에 이르는 경지에 다달았다.

스님의 화두를 향한 일념은 은산철벽도 꿰뚫을 기세였다. 경허 스님은 용맹정진을 이어갔다.

참선 석 달만의 어느 날이었다.

동짓달 보름께 동학사 학명도일(學明道一) 스님이 아래 마을에 출타했다가 이 진사(李 進士)라는 처사를 만났다.

“스님, 요새 중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 읽고 염불하며 주력(呪力)하고 가람 수호하는 일과의 연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중 노릇을 잘못하시면 소가 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소가 안 됩니까?”

산승의 물음에 이 진사의 말이 이어졌다.

> **날카로운 송곳 턱밑에 놓고**
> **수마 쫓으며 참선 정진**
> **백천법문 문득 재가 되니**
> **한국 근대선의 서막 올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가 돼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고 해야죠.”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

진사의 말에 학명 스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 옆에 있던 사미승 동은(東隱)도 마찬가지였다.

동은 사미는 이 진사의 아들 이원규로 동학사에서 행자 수업 중이었다.

학명 스님과 동은 사미승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절에 올라오자마자 여러 대중들 앞에서 물었다.

“대중들은 중 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십니까?”

“소가 돼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대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다들 궁금하기만 할 뿐이었다. 아는 대중이 아무도 없자 학명 스님은 ‘정진 중인 조실 스님께 여쭤야겠다’고 생각했다.

학명 스님이 경허 스님 방을 두드렸다.

“스님께서는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허 스님은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의 도리를 묻는 물음에 활연 대오(豁然 大悟)했다.

때는 1879년 11월 보름 무렵이었다. 경허 스님의 대오각성은 한 수좌의 한 소식을 뛰어넘을 한국 근대선의 서막이 오름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순간, 천하대지가 송두리째 빠져나가고 물아(物我)가 함께 공(空)해 백천법문(百千法門)과 무량한 묘의(妙意)가 한 생각에 문득 재가 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오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매화저고리에 보리치마 사이 거니는 스님은 '학'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 (상)



홍쌍리 선생은 배 아픈 동네사람에게 매실을 먹으라고해 '산꼭대기 의사' 라 불리던 시아버지의 처방을 보고 밤나무가 자라던 뒷산에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梅花本瑩然 매화는 본디 환한데
映月疑成水 달빛이 비쳐 물결 같구나.
霜雪助素艷 서리 눈에 흰 살결 곱게 드러나
淸寒徹人髓 맑고 차가움이 뼈에 스민다.
對此洗靈臺 마주보며 마음 맑히니
今宵無點滓 이 밤 찌꺼기 하나 없네.
- '梅梢明月, 매화가지에 걸린 밝은 달' 율곡 이이

"매화나무 밑에 보리를 심었어요. 파릇파릇한 보리치마폭에 송골송골 맺힌 이슬 위로 하얀 매화꽃잎이 날려서 곱다라니 왕관을 씌워요. 하얀 매화저고리와 파란 보리치마 사이를 하얀 티셔츠 차림으로 거니는 법정 스님은 그대로 '학'이셨어요." 마치 선화 한 폭을 본 느낌이다. 스님을 돌아보는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70)의 애틋한 눈매가 달빛 받은 매화 같다.

약이 되는 밥상을 찾아 셀 수 없이 해외나들이를 한 홍쌍리 선생. 우리나라 흙은 밥이고 산천초목이 반찬이며 산에 흐르는 물이 숭늉이란다. "우리나라 같이 산에서 도라지나 더덕뿌리를 쑥 뽑아 바짓가랑이에 쓱쓱 문질러 흙이 반이나 묻은 채로 그냥 먹어도 탈이 없는 곳이 없어요. 맵고 짜고 쓰고 떫고 신 오미오색五味五色이 산에 다 있어서 된장 한 가지만 달랑 들고 가서 나물들을 뜯어 씻지 않고 쌈 싸먹어도 탈이 없고, 철철 흐르는 개울물을 손으로 떠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 데가 우리나라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실나무를 관상용으로 썼지, 먹을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이 66년도에 처음, 매실을 먹을거리로 만들었다. 시아버지한테서 매실농축액, 매실술, 매실김치 담그는 법을 이어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네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올라오면, 아버지는 얼른 물부터 끓이래요. 따끈따끈한 물에다가 매실농축액을 풀어서 먹이면, 많이 체한 사람은 토해요. 두 번 먹여서 토하고 나면 세 번째는 토하지 않아요. 그런 뒤에 오뉴월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으라고 해요. '더워 죽겠다는데 웬 이불을 덮어놓습니까?' 물으면 '춥던지 기분이 나쁠 때는 꼭꼭 씹어 먹어도 얹힌다. 그러나 날이 푹하던지 기분이 좋을 때는 설렁설렁 씹어 먹어도 잘 얹히지 않는다. 한 번 보래. 동네 제사가 언제인가. 거의 다 겨울이다. 탁한 피가 얼면 죽음이다. 늦가을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아픈 사람이 많다. 탁한 피가 추워서 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것을 멀리해야 한다' 고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쌀이 귀해서 보리식혜가 겨울 감기약이에요. 더 좋은 것은 밤이나 대추나 파뿌리나 생강이나 팔을 푹 삶아서 찹쌀 한 주먹 넣고 죽을 쑤어서, 매실농축액 먹이고 난 뒤에 먹여요. 그리곤 또 이불로 쳐 덮어 놔둬요. 따신 것은 몸을 데워주고 매실은 소화를 시키니까. 아버지가 산꼭대기 의사입니다." 겨우 살아내기에 겨울이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선생은 시아버지를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흙이 밥, 산천초목이 반찬
산에 흐르는 물이 숭늉이어서
마셔도 탈나지 않는 나라

선생이 처음에 시집왔을 땐 둘레 45만평이 다 시댁 땅이었다. 시집온 이듬해 66년, 스물네 살 먹은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밤나무를 베어내고 매화나무를 심자고 했다. "아버지 진해 벚꽃은 4월에 피는데요. 여긴 2월 매조 아닙니까? 꽃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나무에 약만 하면 되는데 돈도 되지 않는 매화나무를 심는다니까. 매실은 아무도 주워 먹지 않고, 사가는 사람도 없다. 굶어죽으려고 그러냐면서 저 많은 일꾼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역정을 냈다. 며느리는 끈질겼다. 시아버지 모르게 밤나무를 베다가 들키기도 여러 번.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야단을 칠 수도 때릴 수도 없어서 그냥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었다. "아버지를 붙들고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게요. 아버지 대를 잘 이을 게요. 지켜봐주세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머리도 감겨드리고, 세수도 시켜드리고 손발도 씻겨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매화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선생 눈물을 밥인양 먹고 자랐다. 눈이 내려 매화나무에 소복이 쌓이면 사람들은 설중매라고 모두 탄성을 지른다. 그러나 선생은 그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얗게 지새웠다. "방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딸내미는 손 시리고 발 시려 죽겠는데, 엄마, 니는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 덥고 자나?' 그럴까봐 애가 쓰여 죽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매화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입김을 '호호' 쐬면, 눈 녹은 물하고 내 눈물이 매화꽃 가슴이랑 내 가슴을 다 적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지들끼리 '얘들아, 이 강풍에 우리가 떨어져 죽어서 내년 봄에 엄마 못 만나게 되면, 우리 엄마 흰머리가 더 나고 주름이 더 깊어져서 엄마 얼굴 못 알아보면 어쩔끼고. 그러니까 눈 감고 입 꼭 닫아. 절대 떨어져 죽으면 안돼.' 아들딸들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이 젖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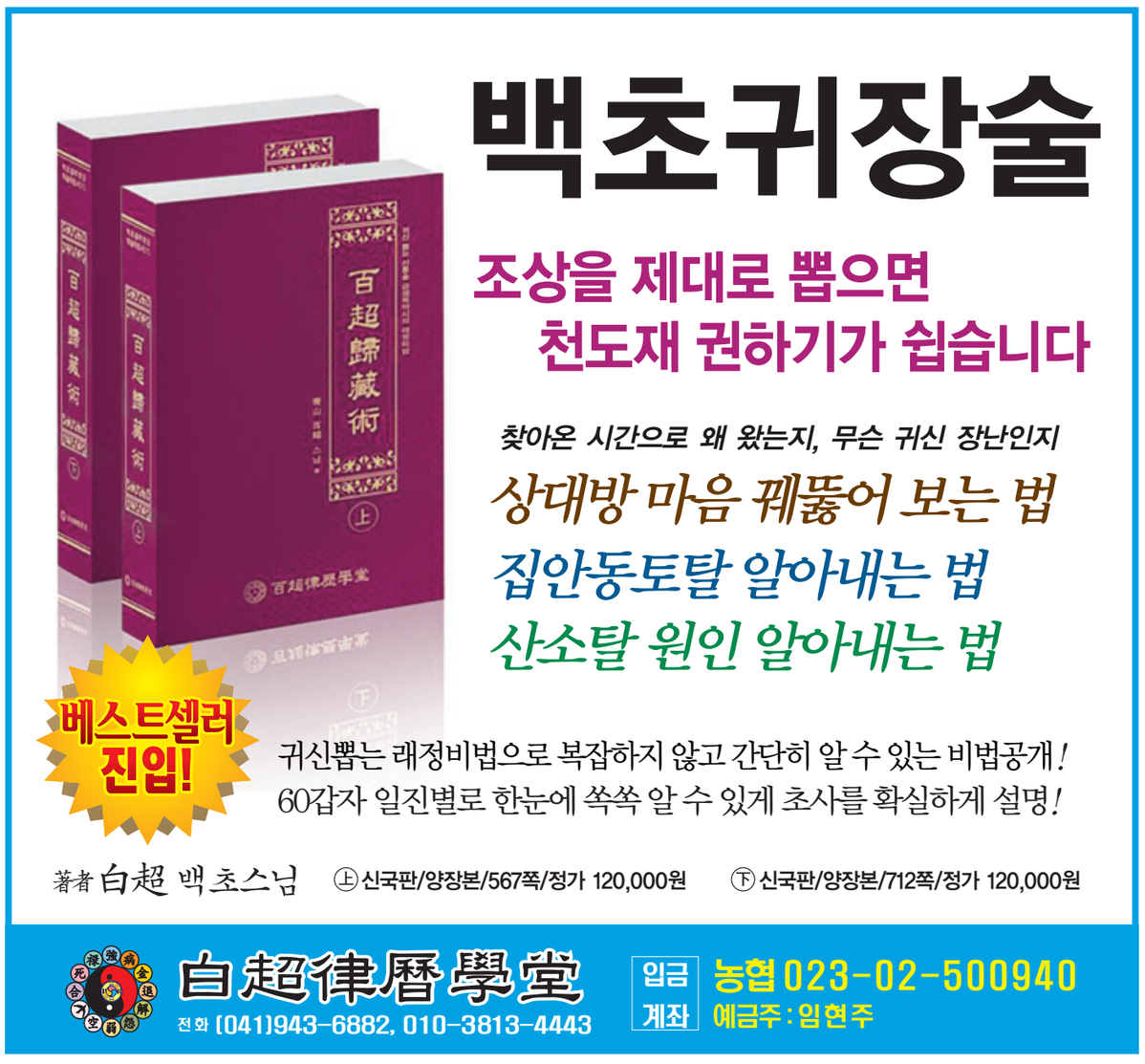
꽃천지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마음 찌꺼기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 만들어보라

"우리 아버지가 딸 같이 잘 보듬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밤나무를 베고 매화나무를 심으려 드니까, 내를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대통령훈장 받은 사람도 우리 집뿐이라네요. 아직까지는."

섬진강가 돌멩이 보석을 베개를 삼고, 새벽안개를 요와 이불삼아 자고 일어나는 이 여인보다 더 행복한 여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홍쌍리 선생도, 이 찬란한 아침을 맞기까지 폭풍우 몰아치는 혹독한 시련을 넘어서야만 했다. 경기도 수원 밑에서 광산을 차린 부군이, 69년부터 4년 동안 45만평에 이르는 많던 재산을 다 털어 없앴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빚은 이자가 45에서 50프로, 농협돈은 35프로였어요. 살 수가 없는 기라예. 날마다 쥐어뜯겨 싸서." 하도 머리채를 쥐어뜯기다보니 나중에는 빚쟁이들이 쥐어뜯을 머리카락도 없을 지경이었다. "국산 옷은 확 잡아당기면 잘 뜯겨 싸서, 철없이 미제 스모루바지(미군 스몰사이즈 바지를 일컫는다. 다른 치수는 너무 커서 줄여 입기도 어려웠기에)에 야전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45만평이 빚에 다 넘어가고, 요 뒤 악산만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빚진 사람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하루는 선생이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하 웃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빚진 놈이 뭐 좋다고 웃느냐고 을러댔다. 한 번은 울다가 들켰다. 이번엔 저렇게 청승을 떠니까 집구석이 그리된 게 아니냐며 끌끌 혀를 찼다. 그 뒤로 입을 닫았다. 잘 살 때 시아버지가 지관을 데려다가 묏자리를 보고 허묘를 써놓고 벌초를 하곤 했다. 선생은 시아버지에게 묘를 절대 여기다 쓰지 않겠다고 했다. "느그 좋으라고 그러지"라는 시아버지에게 "아무리 좋아도 난 못 옵니다. 아버지 묘는 집 옆에 씁니다. 병든 아버지 아들한테 이런저런 힘든 소리를 할 것 입니까? 아버지 손자한테 할 것입니까? 내는 대낮에 아버지 산소 앞에 엎드려서 울지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집 옆에







법정 스님과 홍쌍리 선생. 스님은 37년 전 선생에게 가파른 산비탈에 매화를 심어 꽃천지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선생의 거절에도 스님은 거듭 매화심기를 청했다.

모시고 저녁 열시가 넘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고 했다. "돌아가신 뒤에 너무 힘이 들 때, 아버지 산소에 엎어져서 용기를 달라고 실컷 울고 나면 흙이 이러는 것 같아요. '새댁아. 울고프면 맘껏 울어뿌라. 내 넓은 가슴으로, 니 눈물 콧물 다 받아서 매화나무 목마를 때 줄 게.'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 37년 전 일이다. "법정 스님이 인자하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깔 있는 분이세요. 나는 매화나무를 산 밑에만 심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저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매화를 심어서 꽃천지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고 말씀했어요. '못해요.'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러세요. '그래도 난 못해요.' 그랬지요. 빈 몸으로 다녀도 힘든 곳이거든요. 얼마나 경사가 졌던가. 떨어진 밤이 골짜기로 다 모여서, 따로 주우러 갈 필요 없이 소쿠리에 쓸어 담을 만큼 가파른 곳인데, 거기다 매화나무를 심을라 카면. 아휴, 그래서 '빈 몸으로도 못 다니는데 거기다 심으면 매실을 딸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팔라서 매실은 못 따니까 꽃천지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마음 찌꺼기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 만들어보라' 고 거듭 말씀을 하세요. 스님은 오시면 그냥 앉아서 얘기나 나누고 가시는 성질이 아닙니다. 자꾸 같이 댕기재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지만 스님을 아버지마냥으로 졸래졸래 따라다녔어요. '따숩기로 친정아버지보다 났네.' 그러면서. 일 년에 서너 번, 두 번은 꼭 오셨어요. 꽃이 한 송이씩 필 때면 말씀 안 드려도 오세요. 그리고 꽃이 만개가 되어 바람에 휘날려 떨어질 때도 우찌 그리도 잘 아시는지. 꼭 때맞춰 오셨어요. 그날 스님 따라 모두 둘러보고는 '스님 내 할 게요.'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봄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들어 꽃구경을 하는 이곳은 그렇게 움이 텄다.

"정채봉이 하고 동기간처럼 지낸 지가 30년 다 되어요. 채봉이도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나도 스님을 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돌아보니까, 세 사람이 다 엄마를 일찍 잃었더라고요. 나는 촌놈이라 채봉이 글을 못 따라가지만, 발바닥만큼은 따라가더라고요. 스님은 글을 아주 잘 쓰시고요. 우리 형제들이 문장력이 참 좋았어요. 40년대 말 밀양에 대학생이 네 명밖에 없을 때였는데 삼촌이 대학을 가고 오빠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팔남매 가운데 유독시리 나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입 열어 나오는 말이 곧 시요. 노래다.

나무를 꼭 베어야 하면
스님과 상의하라 당부
낙엽이 많이 모이는 곳은 창고 아닌가
기계소리가 나니 공장을 옮기지 마라

"이름을 지으러 갔더니, 작명장이가 당신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이 사주를 가진) 사내애를 낳지 않고 계집애를 낳았나. 얘는 글을 가르치지 말고, 기를 못 피우게 눌러 키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름을 상의相義라고 지어 줬다. 그런데 호적계에서 그만 두 쌍雙에 다스릴 이理자를 써서 쌍리雙理라고 올렸다. 뒤에 그 사실을 알고도 가시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홍쌍리청매실농원' 이라고 하니까 홍쌍리에 있는 청매실농원을 가리킨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선생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다. 쌍雙자는 둘이라는 뜻이지만, 밭(田)을 가리키기도 한다. 너른 흙을 다스리는 선생에게 걸맞은 이름이다. 작명가가 지어준 이름 또한 넓을 홍洪 서로 상相에 옳을 의義자이니, 넓은 세상에 의롭고 선량하게 어우렁더우렁 어울려 살라는 뜻을 지녀 이 이름도 홍쌍리 선생(70) 삶과 잘 어울린다.

"산을 까서 이 집을 지을 때 스님들이 다섯 분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 손에 밤 가시 하나 찔려도 너무 아픈데, 포클레인으로 땅을 팔 때 지신地神님이 얼마나 아플까. 죽겠어요. 길을 낼 때도 날마다 '흙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내 노래에요.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용서를 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홍쌍리 선생(70) 말씀에 길상사를 일굴 때, 나무를 꼭 베어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당신과 먼저 상의를 하고, 나무한테 베어야 하는 사연을 말하고 용서를 빌고 나서 베라고 했던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스님은 마음에 들게 해놓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들게 해놓으면 마구 야단을 치세요.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선생이 공장을 옮기려 할 때 스님이 오셨다. 스님에게 공장터를 보여드리면서 공장을 이리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낙엽이 어디에 많이 모이냐고 물었다. 지금 서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창고 아닌가?"하고 말씀하고는 내가 어디 가서 볕을 놓고 봐 주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여긴 창고라면서 공장 있던 자리 가보자고 했다. 공장 자리에 가본 스님은 기계는 이미 뜯어 새 공장터로 옮겨놓았는데도 "이곳은 기계소리가 나지 않나. 절대로 공장을 옮기지 마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자리매김 해주신 스님은 뒷산을 가리키면서 '좌청룡 우백호에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턱이 없다' 며 입맛을 다시며 혼잣말 하듯이 말씀을 던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묻질 않았어요. 그 뒤로도 오실 때마다 가끔 그러셨어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너 어디 가니



동국대 선학과 교수

비단 새해 벽두라서 저리 바쁜 것만은 아니다. 언제 보아도 행인들의 모습은 분주하다. 아마 사업 · 직장일 · 여행 · 지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다.

선(禪)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절이 있었는데, 양 쪽 절에는 오랫동안 수행한 큰 스님들이 있었다. 그런데 서로를 적대시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상대편 절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엄히 단속했다. 두 절의 스님들에게 시자가 있어 이런저런 심부름을 했다. 한 쪽 절의 스님은 시자에게 늘 말했다.

"저쪽 절의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말아라. 모두 위험한 인물들이니라."

그러나 아이는 아이였다. 어느 날 두 시자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저쪽 절의 시자가 말을 걸었다.

"너 어디 가니?"

그러자 상대절의 시자가 대답했다.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크나큰 뜻이 담겨 있는 말이고, 참도가 담긴 말이었다.

대답이 이러하자 질문을 한 시자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화가 치솟았다.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아, 스승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겪어 보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데 과연 이런 말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곧장 시자는 스승에게 달려가서 방금 전의 일을 고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저쪽 절의 시자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인사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장에 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도 시장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든' ."

이 말을 듣고 스승은 말했다.

"그토록 경고를 했건만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자, 명심해라. 내일 그 길에 서 있다가 그 시자를 만나면 똑같이 물어라. '어디 가니?' 그 시자가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이라고 말하면 너도 약간 철학적인 말을 하면 된다. '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해라.

시자는 신이나 그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너 어디가니?" 그리고 같은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상대편 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응, 시장에 야채 사러가."

이럴 때 그 시자가 배웠던 철학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인생은 이와 같다. 삶에 무슨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경이롭다. 대비할 수 없는 인생이란 무기력 하다는 것만은 아니다. 대비할 수 없는 삶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쓸 수 있는 수중에 쥔 시간이다.

새해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다. 사람마다 진짜를 받고자 하지만 그 진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진짜는 이미 내 안에 있으며 진짜를 가리고 있는 가짜를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속 진불眞佛 뒷전에 두고
어디를 향해 분주히 가나
대단치 않은 잠방이 소중히 말고
'진짜' 가린 가짜 벗겨내야

마음 속 부처님이 진불(眞佛)이다. 마음속의 진불을 뒷전에 두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분주히 걷고 있는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얻은 잠방이를 소중히 여기는 주변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부질없어 보인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 눈물샘은 감수성의 출구다. 눈물샘이 굳지 않은 사람의 눈은 반짝인다. 영롱하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눈을 보아라. 그런데 성장하면서 거짓 인격이란 허울을 뒤집어쓰고 있다. 어느 결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동심을 잃은 것이다. 거짓 인격이 더 오래 머무르면 그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빨리 잃을수록 더 좋다.

금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어디 가니?"라고 물으면, "응, 진불 찾으러"라고 통쾌하게 말하자.



걷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유교만으로는 민생고 해결안돼 진언 유행

대중신앙의 상징 진언집 간행과 망월사

조선조에 이르러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한 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차례 종파가 축소돼 결국 선교양종으로 통합됐다. 명맥만 유지되다가 급기야 양종마저도 폐지되면서 불교의 근간이 흔들렸다. 우수한 인재와 재원의 부족으로 교리연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우수한 신라와 고려의 불교문화에 버금가는 문화를 창출할 힘이 없었다. 그저 불법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교단이 그러다보니 신도들도 깨달음과 먼 기복 불교에 매달렸다. 경제력을 상실한 사원은 대중의 바람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원의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불교의례는 점점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의례에 치우치게 됐다. 이런 주술화의 핵심은 진언에 있다. 이것은 불교신앙의 신비함이 응축된 아이콘이다. 예전부터 신비로움을 전하기 위해 진언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 진언이 의례에 상용되고 체계화되면서 진언집(眞言集)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전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땅이 경기도 양주였다. 워낙 넓은 지역인 탓에 지금은 양주, 남양주 등으로 나누어졌다. 양주 땅에서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것이 도봉산이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몰리는 이곳에 망월사가 있다. 이곳과 더불어 이웃한 회룡사 그리고 불암산에 있는 불암사에서 간행된 진언집은 조선시대 대중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조선시대 진언집은 연산군 2년(1496) 한양에서 관찬으로 진언권공(眞言勸供)이 간행된 이래 풍기 소백산 철암(哲菴), 전라도 무방산 안심사,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 불영대, 경상도 성주 불영산 쌍계사, 그리고 양주 땅에서는 회룡사와 망월사 그리고 불암사 등에서 간행됐다.

조선시대 진언집은 관에서 주도한 관찬보다 사찰에서 간행된 사찬이 많았다. 유교를 치국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진언집을 간행한 것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유교로써 해결할 수 없기에 불교에 의존한 것이다. 간행 후 귀천에 관계없이 암송해 복덕을 구하라는 내용이 그런 방향을 시사한다.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찬의 경우 신앙적 지침서인 진언집에 대한 보호의식이 담겨져 있다. 이미 있었던 판본이 오래돼 판독할 수 없게 되자 불편함을 느껴 다시 간행했다. 진언을 독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이다. 그렇게 해야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여러 번 베껴 쓰는 가운데 글자가 빠지거나 음이 변한 것이 있어 신통력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돼 간행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사찰의 경우 간행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화주보살을 두고 많은 사람의 동참을 권선하는 것이 통례였다. 특히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 특별히 궁궐에 있는 상궁들이 많은 재원을 보시해 간행을 도왔음이 보인다. 그리고 시주자 명단을 보면 수행자와 거사들의 이름보다 여성의 이름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조선조에 들어서 여성 신도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시주자의 도움 없이 사찰 단독으로 간행한 경우도 있었다.

진언집이 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불정책으로 인한 사원경제의 위축과 신앙적 기반의 상실은 불교의 근간을 어렵게 하는 조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실과 지도층의 신앙적 귀의를 상실한 불교로서 민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진언집의 서문과 발문 등에 진언을 수지독송 하면 공덕이 높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이다.

진언집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에 걸쳐 다양하게 간행됐지만 초기보다는 후기에 이를수록 빈번했다. 이것은 조선조 불교신앙의 변화를 알 수 근거가 된다. 조선 초 배불이 시작됐지만 고려조의 분위기가 있어 기복적 신앙보다 교리적 탐구가 일부 남아있으나, 배불이 강화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행은 사라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대중신앙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사찰서 진언집 펴내
유교 통치 이념 아래 민중 배려한
국가 · 민중 차원의 종합 신앙의식서
후일 경전 축소 독송 신앙과 일치



도봉산 망월사 전경. 망월사는 회룡사 · 불암사 등 인근 사찰과 함께 조선 후기 진언집이 간행되던 사찰이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진언집을 보면 한문과 한글 그리고 범본으로 병기돼 있다. 이런 형식 가운데 범어를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은 진언이 가지는 본래 신앙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 국문으로 표기한 것은 독송신앙을 강조하고 그 음을 쉽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성종 16년(1485)에 간행된 진언집은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학조(學祖)가 간행했다. 이때의 발문을 보면 한글을 병기한 까닭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발간된 대부분의 진언집이 범자와 한문만으로 돼 있어 일반인들은 암송하거나 익히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해본을 간행해 귀천에 관계없이 암송해 복덕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서술돼 있다. 특히 신앙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험담이 한글로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는 신앙적 영험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에 이르면 진언집은 주로 양주 망월사와 불암사에서 간행됐다. 망월사에서는 1800년(정조 24) 영월낭규(暎月郎奎)가 전라도 화순 만연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수정해 중간했다. 영월은 망월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선월당을 세우는 등 전각의 건립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불서의 간행에도 주력한 인물이다. 진언집이 중간될 때 발문을 쓴 사람은 수관거사(水觀居士)였다. 그 역시 1896년 천봉탑비(千峰塔碑)의 명(銘)을 쓰는 등 망월사와 관련이 깊다.

망월사에서 중간된 진언집은 목판으로 모두 121판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불사였다. 시주자 명단만 목판으로 3판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시주자 가운데 특히 상궁 6명의 이름도 보이는데 이들이 발원한 내용이 모두 죽은 부모의 영가를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 신앙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불사에는 양주지방에 사는 신도들만 동참한 것이 아니었다. 설악산 신흥사와 금강산 건봉사도 시주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 같다.

진언집 중간의 감독을 맡은 거사 지영(智瑩)은 1795년(정조 19) 양주 불암사에서 간행한 〈불선천지팔양신주경〉의 간기에도 보이는 것을 보면 망월사와 불암사의 간행사업에 모두 관여하고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양주 불암사 불암사에도 1795년 무렵 〈대승무량수장엄경(大乘無量壽莊嚴經)〉, 〈안택신수경(安宅神呪經)〉, 〈진언요초(眞言要抄)〉 등 36종이 넘는 불서를 판각했다. 이들 대부분은 분량이 적으나 구복신앙적인 성격을 가진 경전과 진언집이었다. 이런 사실은 한 지방의 불교신도는 단지 한 사찰과 연계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망월사 진언집 간행 이전 양주에 있는 사찰에서 진언집이 간행된 예가 있다. 그것은 도봉산 회룡사(回龍寺)에서 1636년(인조 14) 간행된 〈결수진언집(結手眞言集)〉이다. 회룡사는 1630년 비구니 예순(禮順)이 회룡사를 중건한 후 6년 뒤 진언집을 간행했다. 사찰이 중건되고 법회가 개설돼 신도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의식집의 간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주에 위치한 사찰에서 발간된 진언집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국가적 차원과 민중적 차원의 종합적 신앙의식이 담겨져 있어 당시대적 여건 속에서 불교 신앙의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교적 치국이념이 정립됐지만 지배층과 일반 기층민의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형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진언집에 실려 있는 진언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량없는 종교적 복덕에 대한 신앙관이 내재돼 있다. 실제 진언집의 말미에 그런 신앙적 영험을 첨부해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불교의식에서 많은 진언들이 독송되는 신앙형태가 갖춰졌다. 이런 신앙적 경향은 밀교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관에도 진언이 첨부돼 대중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그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런 신앙관은 이미 한국불교에 내재돼 있던 경전을 축소해서 독송하는 신앙과 의미가 일치한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사주프로그램 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를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생활속의 간 화 선
불교방송 출연중!! 밤 9시 55분



수행 결과
• 법화경 독송중 법열
• 화엄철야 21일 신중조복
• 만행을 통하여 애착버림
• 낙엽밟는 소리 생각그침
• 우울증 한순간 원인제거
• 금강삼매경(수행론) 출간예정(12)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 화 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 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2차 – 수행론 강의 2월 2일 개강(접수중)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031)721-2148~9

무 아 선 원 선 원 장 혜 원 합장

사찰이미지 200% UP! 法 果 법과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2의 최승희 배출이 꿈”



최승희 여사가 창작한 한국무용을 선보이는 김영순 원장
사진=박재완 기자

최승희 제자 새터민 김영순 원장

최승희 여사(1911~1969)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로 1930~1940년대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마련한 최승희 여사는 생전에 300여 가지의 춤을 췄다고 한다. 이들 춤 대부분은 민족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동이춤과 화랑춤, 보살춤, 천하대장군춤, 고구려 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석굴암에서 힌트를 얻어 보살춤을 창작할 정도로 불심도 깊었다.

이러한 최승희 여사의 춤을 직접 사사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최승희 무용교육원의 김영순 원장(76 · 사진)이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덩 덕 쿵따다다 기 덩기덕 쿵따!”

무용연습소에서 김영순 원장이 갈색천을 허리에 두르고 입으로 굿거리 장단을 맞추며 사뿐사뿐 춤사위를 연출한다. 곧 이어 무용전공자들이 김 원장의 춤을 따라 춘다. 학생들의 자세를 잡아주고 지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김영순 원장이 가르치는 것은 ‘전설의 무희’로 찬사를 받은 최승희 여사가 창작한 한국무용 기본기들. 김 원장이 북한에 있을 당시 스승이었던 최승희 여사로부터 배운 것들이다.

“최승희 선생님 춤이야말로 하나의 조각이며 그 맛과 멋은 민족의 얼이 충분히 표현되는 춤이라고 봅니다. 춤가락과 구도 변형의 다양성, 우아하고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순 원장은 현재 ‘최승희 춤 발전협회 회장’ ‘최승희 무용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에서 1967년 최승희 여사가 숙청될 때 까지 17년 동안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런 까닭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승희 춤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제자다. 김 원장은 2003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온 이후 ‘최승희 춤’을 전도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김영순 원장은 “선생은 무대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의상이면 의상, 조명이면 조명, 그리고 음악 등 모든 것을 안무하고 연출하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을 갖춘 타고난 분이었다”고 극찬했다.

남한으로 오기 전 김영순 원장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상위 1%의 상류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을 보내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김영순 원장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떠나 중국 랴오닝성으로 이주한 난민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겪은 김 원장과 가족들은 광복 후인 1945년 가을 평양에 건너와 살았다. 김 원장의 친오빠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해 당 기록부에 ‘혁명열사’로 등록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을 모르고 성장기를 보냈다. 이 때 김 원장은 평양 종합예술대학에 입학해 무용을 전공했고 최승희로부터 춤을 사사했다.

평온한 삶을 살던 김영순 원장은 1970년 요덕수용소로 가게 됐다. 故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인 故 성혜림과의 친분 때문이었다. 김 원장은 9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가족 대부분을 잃었다. 이후 2003년 4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 1명과 함께 탈북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건너왔다.

김영순 원장은 평탄치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최승희 선생의 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원이었던 김 원장은 2011년 3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사람사랑,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의 도움으로 서울 역삼동에 최승희무용교육원을 개원했다. 이곳에서 김영순 원장은 어린이 발레에서부터 성인 취미반, 최승희무용 작품반까지 직접 가르치고 있다.

남은 인생을 최승희 무용을 전수하는데 바치기로 결심한 김영순 원장은 제2의 최승희를 배출할 것을 다짐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승희 춤으로 세계무대를 통째로 휘어잡아 예술분야에서 높은 찬사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최승희 선생의 춤을 잘 전수해 제2의 최승희가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처럼 배출될 것을 기원합니다.”



석굴암에서 힌트 얻은 작품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여사

최승희 보살춤 재현에 교계 나섰으면

김영순 원장은 최승희 여사를 독실한 불자였다고 회고했다.

“최승희 선생은 불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불국사를 여러 번 참배했을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숙청당한 이후에도 북한 지역의 여러 사찰을 돌아봤어요. 최승희 선생을 대표하는 춤으로 평가받는 보살춤은 불국사 석굴암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최승희 여사는 ‘보살춤’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는 외국서 공연을 할 때면 스스로 ‘코리안 댄서’라고 밝히고 “조선민족의 예술성은 우수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바라춤, 승무를 비롯해 해녀춤, 아리랑춤, 나팔수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반야월곡성’ 등 100여 편에 달하는 무용극과 소품들을 남겼다.

김영순 원장은 최승희가 남긴 불교적 춤을 불교계에 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교계와의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다.

김 원장은 “최승희 선생의 춤은 알다시피 불교적 춤이 많다. 승무, 바라춤, 보살춤은 미묘하고 단조로우면서도 정말 아름답다. 보살춤은 음악을 편곡하고 재연출만 하면 독무로든 군무로든 다 출 수 있다. 그러나 편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내 자신이 생활기초보호대상자이다 보니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면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최승희 무용이 모두에게 알려질 때까지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송아지 등에 타고 피리 부네

기우취적동자상(騎牛吹笛童子像)



기우취적동자상(동화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교와 인연 깊은 소
김홍도, 이경윤 등 조선 당대화가
소 타고 피리부는 심우도 그려
권상로 기우취적도는 직지사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속가 성은 고타마(Gotama:瞿曇)이고, 이름은 싯달타(Siddhārtha:悉達多)이다. 고타마란 이름은 범어로 ‘최상의 소’ 또는 최고의 소라는 뜻이다. 인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에서 가장 숭배하는 동물도 역시 소(특히 암소)이다.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인도말로 ‘강가’라고 발음)에 갔을 때, 주변을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소들을 본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소들은 주인이 있고, 아침이면 자유로이 집을 떠나 여기저기서 풀을 뜯어 먹고 다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쉰다는 것이다. 말을 안 듣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소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앞발을 서로 묶어 놓아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보았다.

힌두교의 브라마, 비시누, 시바의 세 신들도 모두 소와 관련이 있다. 인도에서 소고기의 도살을 금지한 것은 사실 종교적인 이유보다 기후와 생존이유에서 이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으면, 소를 잡아먹곤 했는데, 다시 비가 내려 농지가 풍요로워도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결국은 굶어죽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를 도살해서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불교의 영향으로 신라 법흥왕 16년(529)과 성덕왕 4년(705) · 11년(711)에는 ‘하령금살생(下令禁殺生)’ 또는 ‘금살생(禁殺生)’이라 하여 왕명으로 도축을 금한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불교는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일반백성들도 불교를 좋아하여 살생하지 않으므로 소를 도살하는 법이 서툴다는 기록이 있다.

소는 인간에게 개처럼 가족의 역할을 한 경우도 많다. 경북 상주에는 권씨 성을 가진 농부를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 죽은 소의 무덤이 있고, 개성에는 눈먼 고아인 주인에게 꼬리를 잡게 하고, 구걸을 다니며 주인을 먹여 살린 소가 살던 동네가 있어 지금도 우담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상주에서 자신을 돌봐준 주인할머니를 그리워해서 그 무덤을 찾아 조문을 하던 소가 죽어서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룬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주로 그려지는 그림의 양식이 있다. 바로 심우도(尋牛圖)또는 십우도(十牛圖)라고 부르는 선가(禪家)전통의 일련의 그림들이다. 마음을 상징하는 소를 그리고, 수행자가 그 마음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열 장의 그림들이다.

심우도(尋牛圖)는 본래 도교(道教)의 팔우도(八牛圖)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12세기 중엽 중국 송나라 때 곽암선사(廓菴禪師)가 2장면을 추가하여 십우도를 그려서 심우도(尋牛圖)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마음을 조복 받는 10가지의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 도상화 해놓은 것이다.

10단계의 그림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그림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동자의 그림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당대의 화가들인 단원 김홍도, 낙파 이경윤뿐만 아니라, 근세 한국 불교의 석학인 퇴경당 권상로(退耕堂 權相老; 1879년~1965) 스님이 그린 기우취적도(騎牛吹笛圖)가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남아 있을 정도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한 켠에 숨어 있는 황동제(놋쇠) 기우동자상을 봤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을 스쳤다. 구리로 색깔을 달리해 상감기법으로 조끼를 해 입히고, 이미 사라진 피리를 부는 동자와 뿔과 뒷다리의 굽과 꼬리가 없어진 소의 모습이었다.

서산 대사가 목암 스님에게 지어준 시가 생각난다.

吹笛騎牛子(취적기우자) 송아지 등에 타고 피리 불면서
東西任意歸(동서임의귀) 동서를 마음대로 다니는구나
青原烟雨裏(청원연우리) 푸른 들, 안개 낀 비 오는 속에서
費盡幾蓑衣(비진기사의) 도롱이옷 몇 번이나 헤졌는가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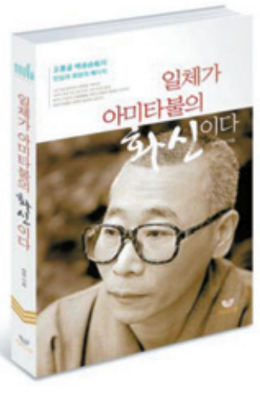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3쇄 돌입에 감사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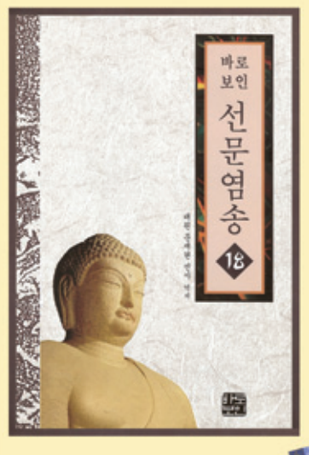
염불삼매 · 관불삼매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토 염불수행법

범어사 승가대학의 강사 소임을 역임한 정목 스님은 92년 전수염불 정진 중 염불삼매를 얻었으며, 98년 하안거 정진 중에 관불삼매를 체험했다. 한국정토학회 이사로서 염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룡골에 정토원(055-375-5844)을 설립, 다음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염불 수행자들을 온-오프 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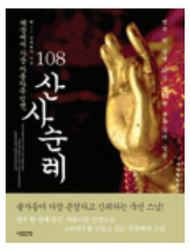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혜자 스님의 산사순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산사기도회



108산사순례
선묵 혜자 지음
아침단청 펴냄
1만5000원



낙산사 순례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출가를 한지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산사순례를 하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한 사찰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만일, 기도회가 없었다면, 산사에 서린 불타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불자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산사 순례를 나서는 일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이며 위대한 불타의 정신을 만나는 뜻 깊은 자리이다."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5년간 108산사순례를 이끌며 마음으로 느낀 진솔한 이야기들을 법보신문에 연재해온 것을 책으로 엮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에서 순례기도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변화를 느낀 불자들의 경험담을 담아냈다.

사업에 실패한 처사가 순례 첫 회에 동참하면서 변화된 삶의 태도와 뇌경색으로 고생하던 한 보살이 꾸준히 순례에 동참해 완쾌되는 여정 등 순례를 통해 가피를 입은 이야기도 볼 수 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006년 9월 도선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양산 통도사를 시작으로 비슬산 용연사까지 63차례에 걸친 사찰 순례를 마쳤다.

혜자 스님과 5000여 회원은 매월 한 곳의 사찰을 방문해 염불과 기도, 108참회,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사경,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통해 신심을 다져오고 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순례자가 돼 전국 산사를 순례하며 진기록들을 세웠다.

그동안 순례한 인원만 30만 명, 5000여 대의 버스가 회원들을 실었다. 공양물로 올려진 쌀만 2100여 가마에 달했고 해당 사찰은 창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가 운집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차츰 회를 거듭하면서 큰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순례 기도가 이뤄지는 사찰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꾼 작물들을 신도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직거래 장터를 연 것을 비롯해 다문화여성 농업인 인연맺기를 지속적으로 주선했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에게 병원비나 약값을 대주는가 하면, 조손가정이나 지역을 묵묵히 지키는 효자·효부에 대한 시상도 병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고 군 장병들에겐 행사 때마다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다문화여성과 도시의 가정을 연결하는 인연맺기가 110건이나 성사됐고, 군 부대에 전달한 초코파이만 해도 230만 개 분량이라고 한다.

스님은 "인생을 살다보면 아름다운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나에게 있어 첫 번째 인연은 진리의 가르침을 준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두 번째는 '108산사순례' 길에 나선 회원들과의 소중한 인연"이라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구할 데가 그리 많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산사를 찾아 마음의 때를 씻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산사순례는 행복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혜자 스님은 14살의 나이로 도선사에서 출가해 은사인 청담(1902~1971·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열반할 때 까지 곁에서 시봉했다. 이후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연찬, 송광사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거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거쳐 청담학원 이사장, 혜명복지원 이사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불교환경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문학평화포럼 이사로 있다. 주요 저서로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절에서 배우는 불교〉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픈 마음 훔치는 '절도범' 스님 이야기

美 보스턴 문수사 도범 스님 수상집 펴내



구도자의 발자취
도범 스님 지음
행림서원
1만2000원

"세상이 싫어서 절에 갔더니 세상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道)가 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에 불교성지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까지 떠돌며 찾고 있습니다. 세속 출세는 시작도 못해봤으며 글자 그대로 속세에서 뛰쳐나오는 출세(出世)를 했습니다."

美 보스턴 '절도범' 스님의 말이다. 스님이 '절도범'인 까닭은 법명이 도범이기 때문.

스님은 "은사스님에게서 받은 법명이 도범 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지 못하니 세속 성을 붙여 쓸 수 없고,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출가했다는 이유로 '석도범'이라 할 수도 없다. 절에서 살고 있으니 '절도범'"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절도범' 스님은 "자신은 남의 귀중품이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이 아니라, 남의 슬픔·외로움·아픔·괴로움을 훔치는 절도범이다"라고 설명한다.

'절도범' 스님이 최근 〈구도자의 발자취〉를 펴냈다. 책은 미국에서 20여 년을 지내온 스님이 시주를 받을 때마다 고마움의 편지를 쓴 것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가 살고 있는 보스턴은 미국의 교육 도시이다. 많은 유학생 수 만큼이나 물가 비싸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사찰이 정착하기 어려운 곳에 '절도범' 스님은 1992년 문수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도 전법에 진력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 가기 전 한국차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다승(茶僧)이었다. 스님이 차를 만난 것은 은사 일타 스님의 영향이었다. '절도범' 스님은 차운동을 시작하면서 차밭을 가꾸게 됐고, 선방스님들을 대상으로 차문화 강의·시연을 했다. 이것이 선원 최초로 우리 차를 알린 시발점이었다.

저자는 문경 봉암사 주지를 지내면서는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주문 밖 산문을 막던 선승이기도 했다. 10·27 법난 때는 총무원을 찾아가 종단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일조했다. 이후 도미(渡美)해 문수사를 창건한 스님은 美 동부 승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全 미주 승가회 고문 및 보스턴 문수사, 마이애미 보현사 회주를 맡고 있다.

먼 이국땅에서 포교하고 있는 '절도범' 스님의 화법은 유쾌하다.

한 신도가 "스님은 입적 후에 다음 생은 어느 곳에 태어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아마 극락세계에 갈 것 같다"고 답했다.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반문에 스님이 대답했다.

"초등학교는 면에서, 중학교는 읍에서, 고등학교는 시에서, 대학교는 특별시에서, 승려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 다음 생은 극락세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책에는 저자가 출가한 이유를 비롯해 불자로서 삶을 사는 지혜가 가득하다.

"눈은 겉만 보이고 귀는 소리만 들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 영양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도 기도가 필요하며 기도로써 맑게 밝힌 마음으로 보면 올바른 길이 보인다."



저자는 "더 많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소유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 욕심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부족하면 괴로움이 따른다"며 "'이정도만 해도 다행'이라며 스스로 만족해 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깨달음의 길목에서 서성이는 이들에게

안동일 前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에세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안동일 지음
마음풍경
1만8000원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2대 이사장을 지낸 안동일 변호사가 2008~2011년 지면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글과 인터뷰 등을 모아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책은 안동일 거사가 불교계 일을 보며 느낀 수상들을 정리했다.

책에는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하고 들은 티벳 〈금강경〉 법문, 2011년 현장 법사 구도의 길을 따라 실크로드를 여행한 기행문, 전국염불만일회에서의 정토법문을 비롯해 각종 법회의 법문, 이사장의 행복편지, 불교계 신문·방송 등에서 인터뷰한 내용 등을 담았다.



책에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대통령기록관에서 한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 이야기를 비롯해 안동일 변호사의 경력이 샅샅이 파헤쳐진 내용도 있다.

저자는 다람살라에서 들은 달라이라마 법문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직 마음의 불성을 찾지 못한 채 깨달음의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던 터에 다람살라를 찾아 달라이라마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존자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고 평범했다."

저자가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꾸준히 마음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생각했다. "14대에 걸쳐 환생한 법력과 내공으로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과 오체투지를 해오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수행자세를 본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책 제목을 대승의 길을 실천하는 올바른 순서를 뜻하는 티벳어의 '림림'을 따라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라고 정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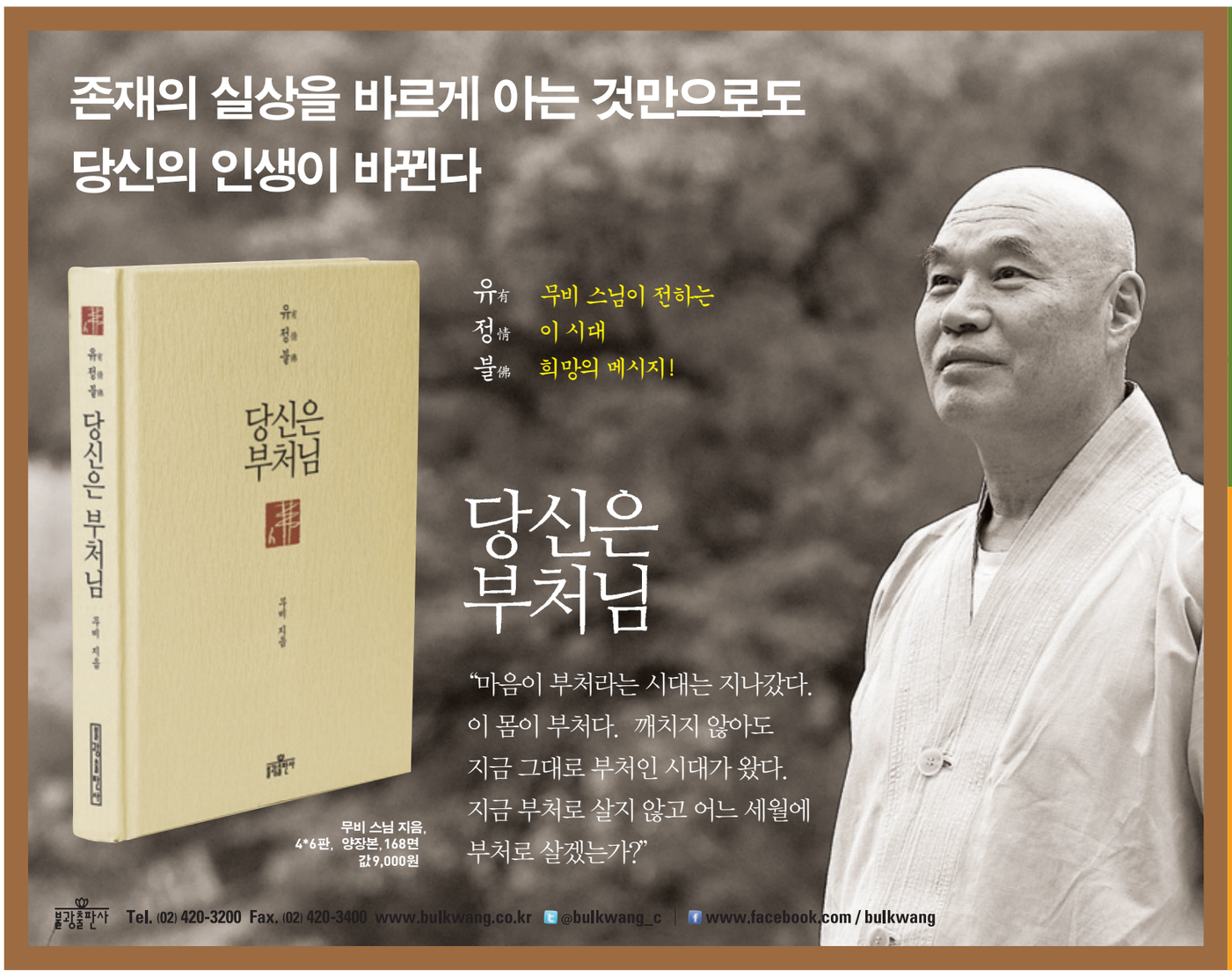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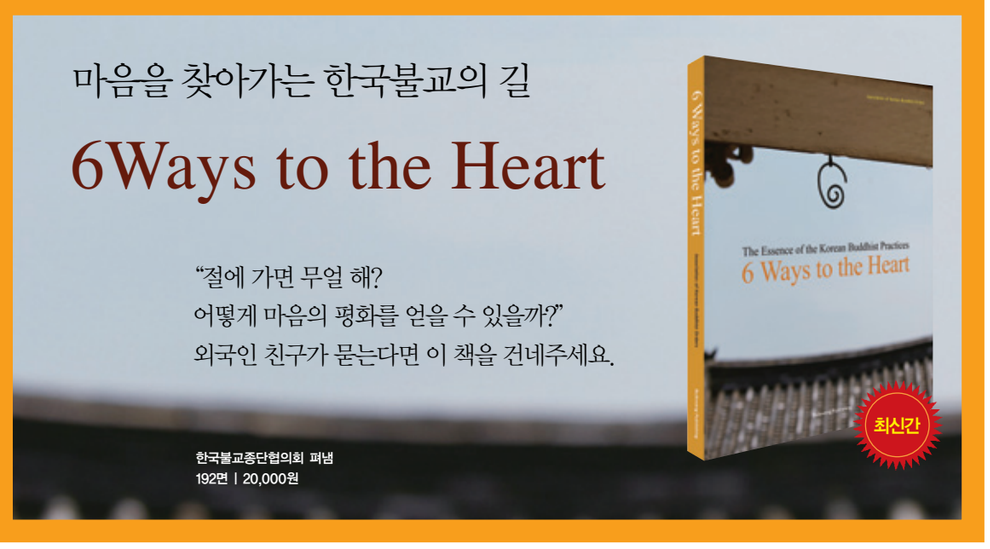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엄마수업	법륜	휴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4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6	마음수업	이광정	휴
7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더난출판
8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9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10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마음이 행복과 불행 가른다

마음수련법 · 에세이집 등 마음 관련 서적으로 한 해를 시작

'마음' 은 모든 것을 만들고 허물어 내는 주체이다((一切唯心造). 불교에서 수행을 마음공부라고도 표현하는 까닭이다. 선종의 4대 종지인 직지인심(直指人心) 교외별전(教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도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心)이 된다고 했다.

새해를 맞아 불교계 출판시장에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는 가운데, 마음과 관련한 책들의 출간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새해에는 마음을 바로 알고, 잘 다스려 '날마다 좋은날' 을 만들어 보자.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명상카툰 〈마음 한번 바꾸면〉의 한 컷. 마음을 비우면 삶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음 열고 고통 받아들여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옥과 천국 양쪽을 모두 견학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다. 먼저 지옥부터 찾은 그는 저승사자에게 식당에 데려가 줄 것을 청했다. 지옥의 식탁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스러웠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이들은 모두 해골 같이 앙상한 채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의 길이가 수 미터나 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숟가락에 푸짐하게 음식을 담을 수는 있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그는 천국을 방문해 식당을 찾았다. 천국의 사람들 역시 수 미터나 되는 긴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주 보고 앉아서 맞은 편 사람에게 서로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바지라메디 스님은 "당신의 삶을 천국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가 지옥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천국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강조한다.

바지라메디 스님은 태국의 달라이라마라고 불리는 선지식이다. 어린 나이에 불교에 귀의한 그는 활발한 방송활동과 43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이끄는 유명한 성직자이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답답하고 고단한 삶에서 나오는 불안과 고민을 해소시켜 준 스님은 지금까지 4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는 바지라메디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안고 사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병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 속에 놓아둔 덫과 같다"고 말한다. 어둠 속에는 빛이 깃들어 있듯이 행복에는 고통이 깃들어 있다. 행복과 고통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고 고통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느낀다.

저자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무리 젊고 돈이 많아도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고통과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 바지라메디 지음 | 일묵 감수 | 프런티어 펴냄 | 1만3000원

내 마음 강하게 만드는 비법



〈마음수업〉은 원불교의 마음수련법을 담은 책이다. 책은 원불교 좌산 이광정 상사가 지었다. 상사(上師)는 원불교 최고 어른이다. 저자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정빈-정산 송규-대산 김대거에 이은 제4대 종법사를 지냈다.

저자는 마음공부를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부터 정치 · 경영 · 삶의 길까지 구체적 해법을 안내해주는 실천적 구도의 삶을 살아왔다.

책은 저자의 마음공부법에 대한 것을 3부로 나누어 담았다. 제1부 마음의 원리에서는 마음의 서설 · 모습 · 내포와 외연을 밝혔다. 제2부 수련의 원리에서는 마음이란 어떠한 대상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또, 마음을 단련하는 수련의 문제를 제기했다. 제3부 수련의 실제에서는 마음수련을 위한 계획과 수련을 위한 서원, 참회 · 유념 · 임심, 수련에의 방해 요소, 수련 일기 등을 밝혔다.

저자는 "내 마음 하나를 고쳐 먹는 일은 나의 흥망성쇠와 생로병사, 행 · 불행을 넘어 세상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일생일대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절 좌선 요가 참선 등 여러 수행법 가운데 어떤 수행법을 실천할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실천과 생활 수행을 권한다.

마음수업 | 이광정 지음 | 휴 펴냄 | 2만원

마음 고치면 몸도 낫는다



흔히 마음이 몸에 병을 만든다고 말한다. 몸은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어떻게 해야 몸의 고통을 덜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다.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는 마음 고쳐 몸 고치는 한의사 최인원 원장이 지은 책이다. 저자는 책에 요통 디스크 골절 오십견 복통 근육통 혈압 알러지 화병 우울증 암 등 100여 건의 치료사례를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는 해결하고 싶은 증상을 말로 표현하면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대부분의 심리적 ·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다.

이는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경락이 막히는데서 비롯됐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가 막힌다"는 말처럼 경락이 막혀 기가 잘못 돌면 온갖 감정이 생기는데, 이때 기의 통로인 경락의 경혈을 두드려주면 경락이 뚫려 기가 돌고 감정이 풀어진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감정이 신체화돼 육체 증상을 일으키고, 부정적 사건의 기억이 쌓여 부정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만든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제거되면 신념과 태도가 바뀐다고 말한다. 즉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면 마음이 바뀌고 육체적 질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자는 "EFT는 공식매뉴얼이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검증돼 있다"며 "누구나 몇분이면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EFT 기법을 따라해보는 동안 독자들은 병을 만들어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 최인원 지음 | 정신세계사 | 1만4000원

차와 선은 한 맛을 추구



禪과 茶
최석환 지음
차의세계 펴냄
2만8000원

차(茶)와 선(禪)은 긴 시간 동안 한배를 타왔다. 1500년 전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좌선하던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두 눈썹을 잘라 던진 자리에 차나무가 자라난 것을 시작으로, 차와 선은 남다른 인연을 맺어왔다.

10여 년에 걸쳐 선차 선양에 외길을 걸어온 〈차의 세계〉 주간 최석환은 최근 〈禪과 茶〉를 펴내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돼 무상 선사, 원오극근(圓悟克勤), 김시습, 초의 선사, 경봉 선사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선차문화의 역사에 대해 밝혔다.

저자는 2000년 〈선문화〉 잡지를 창간하고, 2002년 〈차의 세계〉를 창간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선차문화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이다. 1990년대 중반 조주 백림선사를 찾아 조주탑 앞에서 선과 차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을 갖게 된 이후 저자는 선차의 뿌리를 파헤쳐왔다.

특히 저자는 1997년 추사 김정희의 글씨 중 백미로 알려진 '명선(茗禪)' 을 쓰는데 참고한 '백석신군비(白石神君碑)' 를, 베이성(河北省) 원씨현(元氏縣) 봉룡산(封龍山) 소재 천불동(千佛洞) 한비당(漢碑堂)에서 찾아내 진위 여부를 밝힌바 있다. '명선' 은 추사가 초의 선사에게 차를 보내준 보답으로 써 준 글로써, 저자는 '백석신군비' 의 발견으로 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

책은 이런 저자가 집요하게 파헤쳐온 차맥(茶脈)과 다선(茶禪)을 집대성한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선차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책에는 선다일미의 원류를 밝히고 중국인도 몰랐던 끽다거를 찾은 비화를 비롯해, 조주 다풍의 한국적 전개와 한국 선차의 정신을 밝히고 있다.

책은 차를 통해 선에 이른다는 논리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선(善)한 마음을 차로 맑게 하고 차는 선을 더욱 향기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책에는 선미(禪味)가 그대로 배어난다.

저자는 "차와 선이 한맛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와 선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주장하며, 차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차를 하나 선을 하나,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저자의 철학이 함축성 있게 그려져 있다. 저자가 10수년 만에 선과 차를 한 권에 담아낸 책은 선과 차의 유풍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존엄사 등 죽음의 문화 안내서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미하엘 데 리더 지음
학고재 펴냄
1만6000원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의 기로에서 말이다.

30여 년 동안 독일 의료 현장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한 베테랑 내과 의사인 미하엘 데 리더는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에서 존엄사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다.

저자는 책에서 죽음을 의학적 실패로 간주하는 대다수 의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며 현재 첨단 의학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가꾸는 데 기여하는 완화의학으로 점차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미하엘 데리더의 문제의식은 첨단 의학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의학 혁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과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질병에서 해방됐다. 병의 공격과 육체의 몰락을 막고 노화와 죽음을 지연시킬 강력한 수단과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책에서 저자는 독일 내의 '사전의료지시서' 에 관한 법률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이 법의 중요한 원칙인 '자기결정권'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의료지시서' 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허용해달라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저자는 인공영양 같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 치료의 중단,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간병 시스템 개선, 모르핀 등의 처방을 통한 적극적인 통증치료 실시, 환자 관리에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병원 시스템 혁신 등을 주장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저희 한의원이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 지 한 의 원

예약 문의 |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의사 원장스님 흥화(권대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의 왕족과 왕비족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

갈문왕제 · 골품제 통해 전제왕권 확립



갈문왕은 왕의개념보다 각 지도층 수장을 상징하는 호칭이었다. 사진은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1.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

신라의 갈문왕(葛文王)제는 왕족이 왕비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요서 지역을 무대로 건국했던 요(遼)나라가 중세에 들어서면서 왕비족을 관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구장(國舅帳)제이다. 국구장제는 왕의 장인 중 일정한 세력가를 왕에 준하는 높은 대우로 관장하는 제도였다. 요나라의 국구장제는 본디 2000년 훨씬 전부터 고대 동호(東胡, 고몽골족)족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로 알려져 있다.

요나라 신화에 의하면 신라 건국신화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사(遼史)〉에 실린 글안족의 시조설화는 다음과 같다.

"한 신인(神人)이 '백마'(白馬)를 타고 마맹산에서 토하를 건너 동쪽으로 왔으며, 한 천녀(天女)는 '청우'(青牛)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평지 송림에서 황하를 따라 내려와 두 물이 닿는 목엽산 기슭에서 서로 만났다."

이것은 '백마-청우' 설로서 북방 기마민족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조설화이다. 마찬가지로 신라 박혁거세 시조설화에도 '백마'가 등장한다. 〈삼국유사〉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목을 보면 "흰 말[白馬]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에서처럼 '백마'가 나온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제4대 탈해왕에 이어 박씨로서 왕위에 오른 제5대 파사왕 조목에서는 "고타군주(古陀郡主, 安東)가 청우(青牛)를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에서 '청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글안신화와 대비해 갈문왕 허루(許婁)의 딸이었던 김씨 부인(史省夫人) 이외에 '청우'로 묘사되는 왕비족에서 새 왕비를 맞이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신라 박씨와 글안족 사이에는 또 하나 유사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왕을 일컫는 왕의 명호이다. 글안족은 왕을 막불(莫弗)이라고 했는데 본디 발음은 '박불'이다. 반면 신라는 혁거세를 '불구내'(弗矩內)라고 했는데 '불구'가 순수한 우리말로 '밝을' 혁(赫)이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거세'는 동호족 군장이름인 '가사'계 명칭이고, '박혁'은 글안족이 사용하던 왕의 명호인 '박불'에 해당한다. 때문에 신라를 건국한 박씨(九夷의 하나인 赤夷; 烏桓族, 烏丸族?) 왕조와 요나라를 건국한 글안족은 본래 '동호'(東胡)족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 민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혁거세 설화에 나타나는 '백마'와 고타군주가 바친 '청우'는 아마도 이들의 토템이었을 것이다. 왕위에 오른 혁거세(오환족?)는 계룡(鷄龍, 뱀)을 토템으로 하는 왕비족과 결합해 신라를 건국했고, 부여계로 추정되는 석탈해왕에 이어 다시 박씨 왕조를 연 파사왕은 다시 '청우'를 토템으로 하는 왕비족과 결합해 나라를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나라와 신라 건국신화, '백마' '청우' 토템 유사

2. 갈문왕 제도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통치의 주체였던 왕과 왕족은 방계 왕족 내지 왕비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문왕(葛文王) 제도를 두었다. 갈문왕(葛文王)은 신라 때 혈통을 달리해 왕위를 계승한 임금의 생부(生父)·장인(丈人, 外舅-國舅)·외조(外祖)·동모제(同母弟)·여왕의 배우자 등의 근친(近親)에게 추봉(追封)한 봉작(封爵)이자 명호였다. 하지만 왕의 생부나 장인이 모두 갈문왕으로 추봉된 것은 아닌 듯하다. 28대 진덕여왕 이후 갈문왕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일부 학자들은 갈문왕은 대왕(代王) 혹은 군장(君長)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처음 박씨왕(朴氏王) 때에는 왕비의 아버지, 즉 왕비족인 김씨족의 장이 책봉됐다. 이어 석씨왕과 김씨왕이 등장해 왕위의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박·석·김 세 왕족의 왕부(王父)가 원칙적으로 갈문왕에 추봉됐다. 그러나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이후 김씨의 왕위 부자상속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왕위계승자의 지위에서 밀려난 왕제(王弟)가 갈문왕으로 책봉됐다. 이에 준해 왕비와 왕모 혹은 여왕의 남편도 추봉됐다.

갈문왕제에서 '갈문'은 '잔'(작은 혹은 적은)을 뜻하는 '소'(小)를 가리키는 점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 단군조선 때 연나라에서 망명해온 위만을 본국의 통치자를 보좌하는 임금을 가리키는 명호로서 '한왕'(韓王) 혹은 '비왕'(裨王)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연상해 볼 수 있다. '제'(帝)나 '황'(皇)을 보좌하는 왕은 '비왕'이었고, 대왕을 보좌하는 이는 '소왕'이었으며, 왕의 비왕은 군(君), 후(候), 간(干) 또는 한(汗)이었다. 때문에 대왕을 보좌하는 '비왕'은 '왕' 혹은 '소왕'이었으며 신라의 갈문왕은 왕에 준하는 '작은 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적통대인(嫡統大人, 부족장)이었던 고추가(古雛加)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추가는 고구려 때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칭호의 하나였다. 즉 고추가는 왕족인 계루부에서는 각 가(各家)의 적통 장자를 가리켰고, 옛 왕족인 소노부 및 왕비족인 절노부에서는 적통대인을 일컬었다. 이것은 '존귀한 사람'을 뜻했던 백제의 길사(吉師)와도 상통하고 있다. 백제는 대왕이었던 의자왕과 달리 소왕이란 제도를 두었다. 백제의 소왕은 신라의 갈문왕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왕은 대군과는 다른 것이었다.

갈문왕제, 전제왕권 성립하기 전 왕·왕비족 관계 유지키위한 제도

살펴본 것처럼 신라의 갈문왕은 왕실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족 및 왕의 근친 귀족 및 왕과 혈연관계에 있는 최고 성씨집단(朴·昔·金) 또는 가계(家系)의 장(長)에게 주던 칭호였다. 왕의 아버지, 장인, 외조부, 형제 등에게 주어진 갈문왕은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왕위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원군과 부원군(府院君)에 상응하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갈문왕은 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신라 최고 성씨집단의 씨족장, 혹은 가계(家系)의 장에게 준 칭호로서 왕과는 엄연히 구별됐다. 하지만 지배세력 내에서는 왕에 준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갈문왕제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과정에서 시행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중대의 태종무열왕 이후 전제 왕권이 성립되자 갈문왕제는 대왕의 추봉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그 시행의 의미는 미미해졌다. 836년에 왕위에 오른 희강왕의 왕비가 충공 갈문왕의 딸인 것으로 볼 때 이 때까지 갈문왕제는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유독 신라에만 보이는 갈문왕제는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제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 왕위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와 왕비족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골품제도의 기원

전제 왕권 확립을 위한 지배제도였던 갈문왕제와 함께 신라에서만 보이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제도가 골품제라고 할 수 있다. 본디 골품제도는 신라 지배층 내에서 만들어낸 '관등제도'였으나 점차 '신분제도'로 고착돼 갔다. 골품제는 '골제'(骨制)와 '두품제'(頭品制)의 합성어이다. 골제는 왕과의 혈연관계에 있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대표되는 왕족에 적용되며, 두품제는 왕도(王都)와의 지연관계(地緣關係)에 있는 6·5·4두품의 귀족에 적용된다. 신라의 관등제는 중앙의 경위(京位)와 지방의 외위(外位)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돼 있었다. 골품제의 적용을 받은 경주인들은 중앙관직에 진출해 경위를 지급받았다. 중앙귀족인 왕경인(王京人)은 외위(外位)의 규제를 받던 지방인(地方人)과는 신분이 구별됐다. 반면에 지방인들은 골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외위만을 받았다. 점차 신라 왕실은 독자적 영역세력인 '가'(加)와 '간'(干) 등과 같은 '족장' 혹은 '군장층'을 신라 지배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호 혈연성과 세력 규모에 입각해 지배세력의 서열을 정했다. '골'제에 의해 편성된 성골(聖骨, 부모 모두 왕족)과 진골(眞骨, 부모 한쪽 왕족) 역시 지배집단의 입장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신라는 이를 기반으로 진덕여왕까지 성골이 독점 세습했으며 무열왕 이래 경순왕까지는 진골이 왕위를 세습했다.

골품제는 지배층인 '국인'(國人)에게만 적용된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라 정부는 신라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세력을 지배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배층을 '골'과 '품'의 두 족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했다. '골' 족은 족장세력이거나 유력한 왕실 혈연세력이자 지배층인 거서간과 마립간 등의 '간'층을 국가 체제로 끌어들여 특권을 부여한 계급이다. 반면 '골' 족은 그 세력 규모나 혈연성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했다. '골' 족은 신라에서 차지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거서간과 마립간 등의 '간' 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기에 '간군 관등'이라고 불렸다. 반면 '품' 족은 '간' 층의 신하계급이며 '품' 족에서도 왕족과 왕비족 등의 일부 '품' 족만이 관등을 받았으며, 유력하지 못한 '간' 층의 관료와 신하 계급은 '품' 족에 끼지도 못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절대적 규칙이었다.

골품제, 모든 분야에서 신라인 규제하며 신분제 고착

관등제도는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골'과 '품'을 그 능력에 따라 등급을 주어 편성한 관료제도이다. 초기 신라의 12위 관등에서 '골' 족은 1~9위 관등을 차지했고, '품' 족은 10~12위 관등에만 머물 수 있었다. 이것은 철칙이어서 '품' 족은 절대 '골' 족의 관등에 올라갈 수 없었다. 그리고 '품' 족도 그 능력에 따라 제1위(이벌찬)~제5위(대아찬) 두품을 두었으며 5두품이 가장 높은 두품이었다. 하지만 10위 관등에서 더욱 업적을 쌓은 '5두품'들은 더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중위제'(中位制)였다. 중위제는 당시 10위 관등이었던 '나마'에 1등 나마, 2등 나마, 3등 나마로 관등을 세분해 '골' 족의 관등으로 진급하고자 했던 '품' 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이들 12관등으로는 점차 성장해 가는 신라의 관료사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서 법흥왕은 12위 관등을 17위 관등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품' 족이 더욱 높은 관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자 지배층은 다시 대나마에 '중위제'를 적용했다. 즉 이전 중위제인 나마 중위제를 없애는 대신, 대나마에 1등 나마, 2등 나마, 3등 나마를 만들어 '품' 족들의 진급 욕구를 일부 해소했다. 이 17위 관등은 나마라는 관등 위에 '대나마'라는 새로운 10위 관등을 상설해 '품' 족들이 1단계 더 진급할 수 있게 했다. 신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삼국 통일기에 가까워지면서 신라사회는 '신분제도'의 골품제를 맞이하게 됐다. 이것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진골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통일기 신라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형성된 진골은 5두품 관료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욱 높은 관등을 줌으로써 '품' 족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리해, 원래는 10등급 이상으로는 절대 진출할 수 없었던 '품' 족에게 신라 6두품 아찬까지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때문에 신라에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새로운 '품' 족이 탄생했고, 이들은 하위 '간' 층 귀족과 맞먹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품' 족인 '6두품'은 '득난'(難得)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성'(貴姓)이었다. 당시 지배층은 혈통을 따져 자신들과 동일계라고 인정되는 계열에 한해 김씨를 주고 성골과 진골로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성씨를 김씨로 정한 것은 최초의 (경주) 김씨인 흉노왕 김일제의 성씨를 따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결국 골품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당시 신라인의 생활을 규제하게 되면서 신분제도로 고착됐다. 골품과 두품은 집안과 신분을 뜻했으며 그들의 '벼슬'은 일대(一代)에 제한했으나 '신분'은 세습됐다. 6두품이 등장한 이후 하위 두품인 1·2·3두품은 점차 존재감이 사라진 두품으로 전락해 평민화 됐다. 결국 골품에 의한 제한은 후대에 내려올수록 복잡해져서 지배층의 관계(官階)뿐만 아니라 평민화 된 1, 2, 3두품의 생활(의복, 집, 그릇 등)에까지 등급을 두어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참고문헌

이홍직, 〈증보새국사사전〉(백만사, 1937; 교학사, 1997).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 민족의 기원〉(푸른숲, 2000).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일조각, 1999).

하일식 외,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아카넷, 2000).

히스토리아, '신라 골품제도에 대한 분석'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 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 본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템플스테이 새해 해맞이

자유명상, 정초기도, 참선
황토방 토굴에서
장기 요양 휴식
(동해안 양양 왕금산 현불사)
033)671-6280
010-8317-2520

불교(범음,범패)교육대학

범음,범패,작법무
단기간 속성(실무위주),행사 출장
퇴마(5일완성), 사주(5일완성),
작명(3일완성) 전수
풍수상담, 교육 출장교육
부산 미타사
010-4611-373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역학 비법전수

고수익 보장
직장 책임알선
010-4735-3232
법 진

웰강. 황토. 상황. 氣 토굴. 쑥 뜸방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가맹점 모집
011-573-4438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분(40~50대 초반)도 모십니다
(진주, 밀양)
055)752-6606
055)356-6605
010-8390-6654

미국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삼혼칠백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대 작 불 사 안 내

소승은 관음전 불사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서 백일기도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설판하여 주실분에게는 경봉, 월하, 일붕 큰스님 글씨나 청광화백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는 평생 기도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덕왕사 주지 원각 합장
054)853-3855. 010-9890-1237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경기도)
010-8934-60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65세미만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한라산 관음기도도량)
010-5219-7021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등록가입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염불 참선 간경 설법에 능한 67세 운수납자

사암,선원,포교원
어떤 소임도 가합니다
010-8752-1080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불자정보 26 | 870호 | 전면광고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실평20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13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인천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8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부지: 약 650평
- 전통형 와가 법당 약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50평
- 사찰역사 35년 바다전망 최고
- 위치: 대통령 생가, 거가대교 근교
- 가액: 6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목조한옥독채, 마당포함60평
- 임법당(청동삼존불)
- 방3개.범종, 엠프시설완비 , 마당에는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4천4백만원(절충가능)

010-4056-5677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마을 버스 종점에서 약 120m 도보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500만원,월1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양시 종합운동장앞
- 평수 50평
- 4층건물에 4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 양도

010-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양산인접
- 부지 3000평
- 시설 : 대사찰시설완비
- 특징 : 산사음악회, 큰행사하기 편리함
- 가액: 16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69-227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7140-1204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사찰(급)안내

- 위치 : 국립고원 유달산 내
- 평수 : 200여평
- 특징 : 전설과 영험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6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 , 소답시장 앞
- 평수 : 52평. 2층
- 방3, 주방1, 화장실1
- 보증금 :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약간, 비구니 스님 적합

010-8602-3990
010-8211-8590

도심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9사단 근처)
- 대지 300평 3층 상가 내, 2층 45평.
- 큰 법당, 방1칸,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 양도 1억 9천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 4668 - 655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 대지 400평
- 답 250평, 전 520평
- 건평 가옥2채(70평), 임법당1, 방8칸
- 가액: 1억 3천만원

017-534-13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여평
- 삼존불 및 후불탱화(맞춤) 신중탱화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 대지 135평
- 건물 3동
- 법당 14평(삼존불)
- 도로변200m위치
- 주차시설 원만
- 가액 1억1500만원

010-4146-655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
- 사찰 내 토굴스님, 보살님께 세 놓습니다
- 황토방 단독 20평
- 보증금 1천 500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만 물 사 안 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청동 삼미시장근처
- 임대료 : 보증금 일천만원, 임대료 칠십만원
- 주차장 2대
- 시설비 직접조정

017-263-756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에서 20분거리
- 대지 139평
- 1층 요사채 (공양간, 방3, 거실, 샤워실)
- 2층 대웅전(법당), 건평 21평
- 심야전기 보일러, 주차완비
- 가액: 1억 7천만원

010-5469-8336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 대지 135평
- 건물 3동
- 법당 14평(삼존불)
- 도로변200m위치
- 주차시설 원만
- 가액 1억1500만원

010-4146-655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암 자 안 내

- 위치 :김해시 주촌면
- 대지 122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개발지역
- 가액 2억

010-8503-2350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01-36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대웅전 목재3포(31평)
- 종각, 산신각, 요사채등
- 부지 약 1,000평, 임야 약 3,000평
- 교통양호 (국도변)
- 가액: 11억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01-3671

외 딴 농 가

경북 영양
반듯한 농가주택
건물 18평 2동
대지 124평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29번지
- 3천평
- 정동향 해돋이 바다 보임
- 전기, 수도시설 완비
- 컨테이너 가건물 합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6-554-955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1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3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 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 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433-4193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 1층요사채 2층 법당
- 건평 45평
- 구조: 삼존불외산신및각종신불일체
- 1층 방 3개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전세 가능합니다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76-2281/052)29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2리 23
- 대지약 150평 170평사용,건평 법당 약 40평 , 요사채 약 40평
- 불상: 아미타불2불, 관세음보살1불, 대세지보살1불, 지장보살1불,
- 후불탱화 3점, 감로탱화 3점, 사천왕도1점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가액 6500만원 절충가능

직통 010-5777-0011

특허 출현된 황토쑥뜸침대방

당뇨 성인병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스님 불자님에게 시설를 무료 보시합니다.

- 단독주택(25평)방2,거실,
- 주방,화장실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 굿모닝 병원 앞,대로변)

010-4191-0455

사 찰 안 내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 여 엘리베이터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 법구경 –

명상 8주 프로그램
〈1〉

호흡 조절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고 삶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잭 콘필드의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을 교재로 명상법을 소개 합니다. 잭 콘필드 박사는 태국 인도 등에서 승려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통찰 명상을 임상심리학에 접목시켜 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서양에 전파시킨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입니다.

명상은 쉽고 단순하지만 개방성, 탐험심, 바라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앉거나 걷거나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자각해 집중하고 호흡과 몸, 감정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큰 이해심과 연민과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자신에 맞는 명상법을 선택해 매일 명상을 하면 인내심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잭 콘필드의 명상 8주 프로그램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명상법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법을 따라해 몸과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현명하고 친절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한 힘을 일으켜 봅시다.

편집자 주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레슨1 – 호흡과 하나 되기

순수한 영적 수련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방석 위에 쪼그려 앉거나 가부좌를 틀어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가부좌를 틀 때 엉덩이를 바닥에서 조금 높여 무릎이 약간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가 잘 통하려면 등을 뻣뻣하지 않으면서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깨 힘을 빼고 손을 편안히 둡니다. 대개 손을 허벅지나 무릎 위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편안해지고 가슴이 열리며 복부가 긴장하지 않게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는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스스로에게 "호흡을 느끼고,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나의 몸이 무슨 일을 경험하는지 느껴보자."라고 말하십시오.

생각이나 계획, 기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생각을 적게 하면 보다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명상 유도문
자 이제 명상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주변 환경과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움직임,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 기대를 느껴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이완한 다음 자신의 생각, 감정, 기대, 기억 등이 움직이며 변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제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명상은 프라나야마(pranayama)처럼 빠른 호흡법을 이용하는 호흡명상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훈련으로 어떤 식으로 호흡해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숨 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움직임, 즉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느껴지는 모든 것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코와 목을 시원하게 지나가는 느낌, 따끔거리는 느낌, 가슴의 움직임, 배가 불렀다가 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호흡입니다. 1분에서 2분정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마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스스로의 리듬대로 움직이도록 그냥 둡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계획, 그리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안에 빠져들지 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헤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이 쉬고 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마음은 10분 사이에 수백 수천번 헤맵니다. 마음이 헤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숨을 들이쉬면서 '안으로' 내쉬면서 '밖으로'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뇌는 것은 5% 정도만 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의 호흡을 느끼는데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호흡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코와 목이 시원해지고, 배가 불렀다가 꺼지며 온몸이 호흡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껴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와 이웃 위해 자비경 염송을

필수자비경 ㊏

1.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얼핏 맛보고서
더욱 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2.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속인들에겐 뻔뻔스러워서도 알랑대서도 안 되리.

3. 또한 현자의 질책을 살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할지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 지니)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4.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건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건,
또는 짧건, 미세하건 또는 거대하건

강대자행 옮김

'필수자비경'(Karaniya Metta Sutta)은?

〈필수자비경〉은 남방에서는 경의 첫 말인 Karaniya(마땅히 해야하는)로 불린다.

부처님이 〈필수자비경〉을 설하게 된 동기는 아- 짜리야 붇다고싸(Acariya Buddhaghosa)가 쓴 주석서에 설명돼있다.

부처님 재세 당시 500 비구들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각자 기질에 맞는 특수 명상법을 지시 받고 우기 안거를 위해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비구들은 주야로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골랐다. 나무의 목신들은 정진하는 비구들을 존경해 비구들이 하루나 이틀 묵어가리라 생각하고 불편을 참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자 언제쯤 비구들이 떠날지 답답했다. 마침내 목신들은 끔찍한 소리를 내거나 역겨운 냄새를 피워 비구들을 쫓아내기로 결의했다. 수행자들은 더 이상 참선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구들은 사위성에가서 부처님에게 이를 고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 곳으로 돌아가라. 목신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필수자비경〉을 외우고 닦으라"고 설했다.

비구들이 명상의 주제이며 호신주인 〈필수자비경〉을 암송하자 신령들의 마음이 따듯한 호의로 가득차 다시 비구들을 공경하게 됐다. 수행 정진한 500 비구들은 마침내 모두 아라한이 됐다.

〈필수자비경〉을 명상하면 이를 외우는 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까지 보호하고 정신적 향상을 이루게 한다. 새해를 맞아 〈필수자비경〉을 염송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 팩스768-8413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 10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의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2년 2월 10일 (음력1월 19일 금요일) 오후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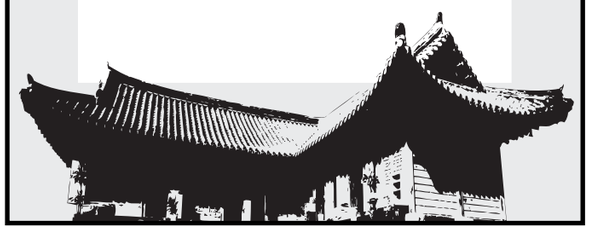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다 두십시오

올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한마음의 도리에 더욱 정진하셔서 가정에 병고 액난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만물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역시 그렇고,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돼야겠죠. 하여튼 제가, 아마도 말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고 안 했다면 안 한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없어져 버리면서 다시 생하고, 다시 생하면서 또 없어지곤 합니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이 됐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의 해답을 꼭 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말을 해 드리는 것보다도, 질문들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도반으로서 열심히 서로서로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마음의 사랑을 베풀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한 가지씩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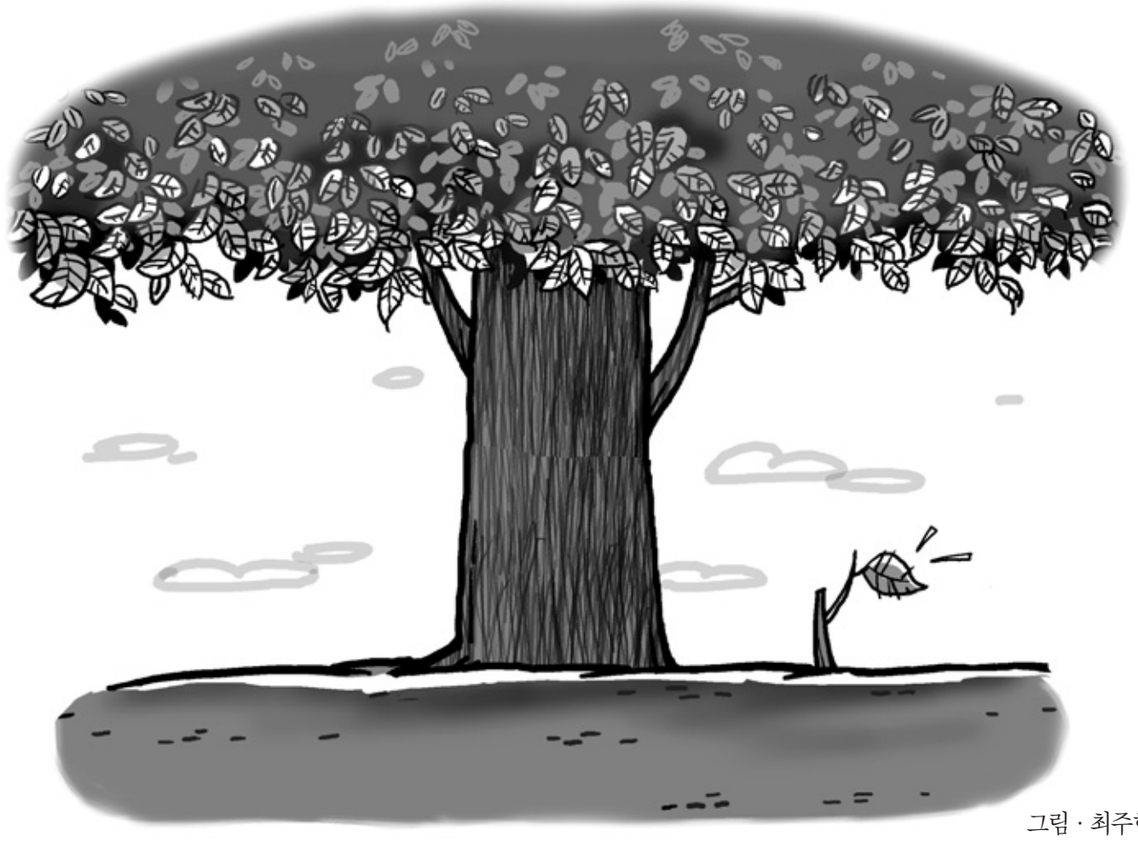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큰스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 형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님께 전한 불법이 중국 육조 혜능에 이르러서는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로부터 혜능의 법이 융성하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불법이 번다해지고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큰스님께서 보시기에 혜능의 밝은 법등은 미래에는 어떻게 전법이 되어 갈지 그 인연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스님: 항상 말씀해 드렸듯이,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깨쳤다 하더라도 찰나찰나에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나 아님이 없다는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으로써 육조 혜능 선사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배출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왜 이러냐고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한 번도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잡이로서 이렇게 일러 드리는 것은 바로 역대 선사가 일러 드리는 말이나 육조 선사가 일러 드린 말이나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 자기를 자기가 알라고, 깨치라고 그때 육조 선사도 역시 말씀하신 겁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들 보살들이 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사대 성인도 '너부터 알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탓이지 왜 그분들의 탓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으면 불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믿고 맡기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보리심을 통해야만 도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의 수승한 공덕이 칠보로 수미산을 장식한 것보다 크다.' 고 하고, '이 경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일념으로 염송해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염불문을 세우는 것이겠죠. 또 다른 절에서는 백팔 배, 삼천 배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배를 빌어 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배를 만들기가 힘들어 아미타불 등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의 배를 빌어 타고 싶은 게 중생심인데, 이런 경우에 타력에 의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염불문이나 예불도 결국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을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잎새가 헤아릴 수 없죠? 나무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들은 많고 그 잎새는 더 말할 거 없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읽는다 하면 잎새를 세는 거와 같고, 또 백팔 배를 한다면 바로 나무를 만져 주는 거와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가지와 잎새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잎새를 아무리 세어도 센 사이가 없을 테고, 가지를 아무리 더듬어 줘도 더듬어 준 사이가 없을 겁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은 다 가르치시길 "얘야! 나뭇가지도 아니고 잎새도 아니니라. 뿌리에다 돌리거라.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 두어라.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은 뿌리로부터이니라. 그러니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뿌리에서 들이고 내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모두 죽어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든 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뿌리에 물을 촉촉하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이파리를 세지 않아도 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나무 잎새나 나뭇가지나, 나무 둥치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알고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라. 그럼으로써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느니라. 절을 하되 절을 하는 사이가 없이 할 수 있느니라. 또 경을 보되 귀로 보고 모든 만물 만생의 소리를 듣되 바로 눈으로 듣는다.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눈으로 듣는다도 없고 또 귀로 본다는 것도 없이, 바로 하나가 불끈, 하늘을 끼고 돌아가느니라." 이런 뜻에 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수십억의 의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모습을 두고 있는 이 몸이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크다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나무는 아주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고 멸하고 이러는데 사람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복도 아니요,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면서, 대천세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탁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도 모든 걸 그냥 탁 놔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라 이런 얘깁니다.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내기 이전 불성 말입니다.

그거를 일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들이고 내느냐? 마음이 들이고 내는 거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끌고 가니, 그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선(善)의 공덕길로 끌어들여라.' 하구요.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모든 물질, 개성, 마음들이 전부 우리가 있기 이전에도,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자기 개성을 톡톡히 두고 돌아갔던 시절이 있었겠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개성이 한데 합쳐서 지수화풍을 이루었고, 지수화풍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이루어졌는 반면에 인간, 이 생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 모든…,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됐군요. 질문하세요. 하하하.

질문자1(남): 제가 다음 질문할 것을 미리 법문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허허허….

큰스님: 그래서 탈이에요. 하하하….

질문자1(남):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에 보면 무주보살(無住菩薩)이 세존께 드리는 질문 가운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생각의 움직임이라 하리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한 생각 움직이면 오음(五陰)이 걷혀 나가니 오음 가운데는 오십 악이 갖춰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로지 심신을 가라앉혀 무심이 돼라 하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한 생각을 낸다는 것의 경지는 무엇인지, 또 한생각을 내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한생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생각입니다.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 '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이요, 생각을 해서 말을 했다 하면 보살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 자기한테 물었겠다! 하하하…. 그러니까 '한 생각을 어찌 생각하느냐?' 할 때, 일체 만생이 다 마음을 들이고 내는 데에 모든 생각, 이걸 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한마음! 그 한마음 속에는 오십 악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선의 생각이 오십이라면 악의 생각도 오십이다. 이 오십 악이라는 것을 볼 때, 생각하는 대로 물질적으로 관습이 돼서 찾는 거, 욕심부리는 거, 애착, 애욕 또는 편견, 아상, 아만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보세요. 거기에서 풀리는 그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음 속에는 오십 악이 들어 있으니 악도 오음도 양면에서 같이 작용을 해서 둘이 아닌 작용을 한다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천지에 자유스럽게 밝게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즉 말하자면, 칠보활궁공법(七寶活宮空法)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런 거죠. 그냥 찍는 대로 법이 돼야 이게 활궁입니다. 활궁공법심(活宮空法心)으로서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용입니다.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동시에 작용하면서 활용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걸 일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무주보살이 말을 했느냐? 그 '무(無)'자가 들어간 것은 바로 형체가 아닌 보살이 물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색(色)으로 보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색으로 보지 않고 또는 무심으로도 보지 않고, 양면을 다 작용하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에다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모조리 읽었다 하더라도 경을 보지 않고 경을 봐야만이 경의 진의가, 뜻이 나온다.' 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고 보고, 듣지 말고 듣고 이런 뜻을 알아야 경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전깃줄과 전깃줄을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질문자1(남): 원래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덤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큰스님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 겸해서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된 분은 그 확률이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과(果)를 얻었을 적에 그것을 다시 회향을 하는 공덕은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시시각각으로 회향을 하는데 회향이 무슨 따로 있나요? 아니, 밥을 먹고 끝나면 회향이요, 똥을 누고 일어나면 회향이요, 말을 하고 끝을 마치면 회향이요,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어요. 시초가 있고 회향이 있어서, 우리 살림살이 어떤 거 하나도 떠나지 않는 것이 회향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이 이치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진짜로만 믿는다면 모든 게 회향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뜀박질을 해서 천 리를 뛰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더러 사회에 나가서 벌이 해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내 앞에 닥쳤는데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수없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다가 주기까지 하면서 일러 드렸는데도 모두들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거는 자신이 먹어야지 되겠죠. 대부분 세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오신 분도 있고, 오셔서 좀 희미하게라도 아는 분이 있고, 이해를 완전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한마음 소식을 얻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린애들이 집에서 노는데 불이 났으니까 사탕을 줘서 끌어내려고 "너 장난감 이런 거를 줄 테니까 얼른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애들을 건지듯이, 여러분에게서 괴로움과 정말 견디지 못할 문제들을 볼 때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울면 내가 울음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인연의 줄 없는 줄이 얽혀 가설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언짢아지고 눈물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남이 울면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줄 없는 인연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았죠? 어디로 이렇게 싹 돌아가 버렸어. 하하하….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질문자1(남): 회향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땅이 솟고 찢어지고
> 금방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 거기서만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 믿음을 굳건히 갖고 근본자리에 놔야 합니다.
> 그런데 왜 그걸 놓지를 못하고
> 딱! 마음으로 잡고선 발발발발 뛰십니까.

큰스님: 아이구! 회향은 얘기했잖남. 하하하…. 응! 시초가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요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애석하게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습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좀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하는 사람 앞에 오장 육부 속에서 모든 인과로 인해서 모인 중생들이 제가끔들 일어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인과를 지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좋고 나쁜 거, 자비, 사랑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통솔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만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땅이 솟고 찢어지고, 온통 금방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놔야 되는 건데 그걸 놓지를 않고 딱! 마음으로 잡고선 발발발발 뜁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에? 아무리 안 그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으로 아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다 아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이 소인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니 저는 한시 반시도 안타까운 것이 떠날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깁니다. 여기서 왈가당하면 저기서 왈가당하고, 저기서 왈가당하면 여기서 왈가당하는데, 만약에 내가 조촘병이 들은 사람, 즉 기복으로 나가는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 줄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자기 몸도 추려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고 하고, 웃을 때는 웃으면서, 고가 닥칠 때는 고가 닥치는 그 잠시 잠깐을 그냥 죽겠다고 하니,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하하…. 그런데 하는 사이가 없이 하니까 이만이라도 하죠.

또 우리 신도님들만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나, 저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살림살이에서 고통받는 거는 저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사람에게 밟혀서 허리가 끊어지듯 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아픔이나, 사람이 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느 거든지 그 아픔을, 쓰라림을 겪지 않는 생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도 살아 있을 때의 그 차원대로 죽어서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더하고 덜함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더했다 덜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부딪침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한 그릇의 차원이라면 그대로죠. 그래서 천도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아주 가슴이 아파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할 때 무조건 그냥 그냥 탁!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거기 집중하는 거….

질문자1(남): 저희는 만날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대장장이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만날 큰스님께서 일러 주셔도 항상 되풀이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큰스님: 또 질문할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자 세상보기

방관자적 무관심은 간접살인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30여 만 학생 왕따 폭력 시달려
학생들 사회적 규범의식 미숙
전문상담 교사 대폭 늘려야
일선 교사 관심 회복 급선무

대구의 한 어린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세밑 내내 우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자기가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하나뿐인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뛰어내리기까지 얼마나 무섭고 또 망설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지상을 향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 것은 왕따와 이어지는 폭행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준 최후의 몸짓이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최근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30여만 명의 초·중·고생들이 이른바 왕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서도 중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은 대학입시와 같은 뚜렷한 학습목표가 없는데다 삶의 진로마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극히 불완전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은 급격한 성장기의 불안감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 사회적 규범의식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래문화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시기 이기도하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어떤 아이를 미워하거나 따돌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를 따라 함께 못살게 구는 '왕따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따돌림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폭력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몰고 가는 것이 요즘 중·고생들의 죄의식 없는 교실문화이다.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의 경우 폭행과 금품갈취는 말할 것도 없고 물고문에다 전깃줄로 개목거리를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모멸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그 순진무구한 열네 살 나이의 꽃다운 죽음에 대해 한국사회가 계속 '방관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모두는 간접적 살인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왕따 피해학생의 표현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뿐이라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 '침묵하는 다수' 속에는 주변의 동료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교사, 가해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 그 외의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공동체의식의 결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암울한 자화상이자 동시에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 지도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와 학부모 및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현장목격자에 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교육자적인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상담교사의 숫자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도가 지나친 가해학생들을 폭력현장에서 과감하게 격리시키는 행정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진년 새해에는 잘못이나 그릇됨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을 듣기보다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소박한 희망을 공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전사법 개정에 큰 자율 점검 따라야

한국불교의 발목을 옭죄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이 구랍 29일 또 한번 개정됐다.

이번 전사법 개정은 그간의 개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재산관리인 임명, 재산목록 비치 등 100년 동안 국가가 불교계를 관리·통제하는 근거가 돼 왔던 독소조항들이 철폐됐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불교계 전체가 크게 만족해도 좋을만한 성과가 분명하다.

더욱이 조계종 집행부가 이번 전사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와 관련한 규제법령 철폐에 지속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으니, 한국불교의 묵은 체증이 모두 가시는 듯하다.

그러나, 법령규제가 모두 철폐되고 난 다음의 일은 궁금하기만 하다. 조계종만 해도 그동안 불사심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또, 2009년 당시 불교계가 요구해 문광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전통사찰 문화연구원도 연구·조사의 주체가 불교계가 아닐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이번에 법령에서 삭제됐다. 조계종은 법률 규제 해소를 대신해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주어진 자유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더 큰 구속이 따랐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오지 않았는가.

스님 장기기증 증가와 5대 결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반짝 상승 후 다시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받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140명의 스님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 전년 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장기기증 서약을 한 스님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새로 편찬된 〈선원청규〉의 실천에 따른 것이라 하니 앞으로도 매년 발표가 기다려진다. 조계종 〈선원청규〉는 "장기기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실천 행위다. 수행자는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생명·평화·문화·나눔·수행)이다. 결사 실천의 한 방편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중앙교역직 스님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고무적인 가운데 출·재가불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소식도 들린다. 카톨릭은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계기로 장기기증 운동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가 2000만 불자 각자의 자비심을 일깨워 더 많은 장기기증 동참을 이끌어 내길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작심삼일 두려워 말기를



도각 스님
태고종 종정예경실장
자연치유학박사

마음의 본체를 알면 희망 보여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호흡 통한 정신집중 수행으로
청정한 마음 되찾을 수 있어

한 해가 지고 또 새 일 년이 시작되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근기 약한 중생인지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각자가 굳게 먹은 마음이 얼마가지 못해 곧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멈추고 만다. 왜 3일일까? 이 말의 뜻에는 처음 시작해 3일이 고비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림자 즉 번뇌망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수행경험으로 단식이나 철야정진기도를 할 때도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3일이 지나면 배고픔도 차츰 감소되며 졸음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던 기억이 난다.

불교에서도 숫자 3에 대한 내용이 많다. 진리를 삼법인(諸行無常, 諸法無我, 涅槃寂靜)으로 말하고, 신앙대상을 삼보(佛·法·僧)로 정한 것이나, 삼독(貪·瞋·癡)을 경계하라는 말씀과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를 삼계(欲·色·無色界)라고 한 것이나,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3일의 한계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작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업연은 또 무엇 때문인가? 마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마음의 본체를 알면 하나의 희망이 보인다.

마음을 일원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신심명〉에서는 마음을 일컬어 "허공 같이 뚜렷해 모자랄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다"라고 했다. 〈금강경〉에는 "지난날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이르렀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의 자성(自性)은 공적(空寂)해 대립도 없고 소멸한 일도 없다. 그것은 처음인 것도 아니요, 가운데나 뒤인 것도 아니며, 삼세(三世)를 초월해 그 모습이 허공과 같다"고 설했다. 이렇듯 마음의 본체에는 상(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승사유범천소문경(勝思惟梵天所問經)〉에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해 더러움에 물드는 일이 없다. 마치 하늘에 연기와 먼지나 구름 그리고 안개 따위가 뒤덮여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늘의 본성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마음의 본성 또한 청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기만 한 하늘이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는가? 그것은 마음에는 심식(心識)과 연기(緣起)가 있어 알음알이를 내고 업연에 의한 윤회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윤회의 바퀴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이 바로 마음수행이며, 마음수행은 호흡을 통한 정신집중으로 식(前五識, 意識, 末那識, 阿賴耶識)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연기의 굴레를 벗어나 마음의 본성, 즉 일심(本性)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이면 바꿀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그마한 날개 짓이며, 보다나은 내일을 향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금년에 또 한 번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해운정사
주지 청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풍기정품
홍삼액기스.인삼
직접 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100mix60포(한달분) 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레드파워) 홍삼편.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환. 홍삼먹은사과즙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72시간 이상을숙성발효시켜 만든 홍삼액기스입니다.
■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삼정
TEL 054)636-2174 / 016-815-2174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恒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지적)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 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症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서울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 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준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갈수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규정준수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